

集安高句麗碑の構成と内容

* 司会 :

それでは三人目の発表となりますが、今回中国、韓国からお招きしている三人の先生方、いずれも高句麗史を特にご専門とする先生ですが、韓國外國語大學教授の余昊奎先生にご発表をいただきます。タイトルは、「集安高句麗碑の構成と内容」ということです。余昊奎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ただいま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余昊奎です。

このような学術大会にお呼びいただいた早稲田大学の李成市先生、その他関係の皆様にご感謝申し上げます。

集安高句麗碑が発見されてから中国でも何度も学会を開いておられますけれども、韓国でもこの春、4月にシンポジウムを開きまして、孫先生、それから耿先生もお招き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韓国、日本、中国、三カ国の研究者が集まって行うのは今回が初めてだと思います。

今日の学術会議が高句麗史研究において韓国、中国、日本の学術交流に大きな意味を持つものと思っています。

新發見 < 集安高句麗碑 > 의 판독과 내용 검토

余 昊奎 (韓國外國語大學校 史學科)

머리말

1. <集安高句麗碑>의 조사와 연구현황
 2. <集安高句麗碑>의 판독문과 단락 구성
 - 1) <集安高句麗碑>의 비문 판독안
 - 2) <集安高句麗碑>의 단락 구성
 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내용 검토
 - 1)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 2) 고구려 건국설화에 관한 신지견
 - 3) 고구려 왕릉 수묘제에 관한 신지견
- 맺음말

머리말

사료가 부족한 韓國古代史 연구자에게 신자료의 출현은 가뭄에 단비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다. 사료 부족이라는 갈증을 해소시켜줄 뿐 아니라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도 열어주기 때문이다. 필자도 금년 1월 16일 아침 中國 國家文物局의 ‘中國文物信息網’ 사이트에서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 題下の <集安高句麗碑> 발견 소식을 접한 다음,¹ 한동안 흥분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특히 이 기사에는 해상도는

낮지만 탁본 사진까지 실려 있어서 비석의 眞僞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비석 발견 소식이 전해진 이후, 韓國古代史學會를 중심으로 비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월 29일 처음 검토회의를 개최한 이후 판독회 (3. 9, 6. 1) 와 국제학술회의 (4. 13) 를 잇달아 열고, 현지도 두 차례 방문하였다 (2. 22-26, 5. 16-19). 이를 통해 제반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고, 여러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² 지난 6월 말에 간행된 《韓國古代史研究》70집 (集安高句麗碑 特輯號) 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것이었다.

본 발표문은 상기와 같은 韓國古代史學會 차원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다만 비석을 두 차례 실견하였지만 근거리에서 면밀하게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보고서와 중국학자의 논지를 통해 15종의 탁본 사진을 확보하였지만, 원탁본을 實見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³

1. 〈集安高句麗碑〉의 조사와 연구현황

<集安高句麗碑>는 2012년 7월 29일 集安市 麻线乡 麻线村〔5組〕村民인 马绍彬이 발견하였다. 발견 지점은 集安 시가지에서 서남쪽으로 3.5km 떨어진 麻线河 右岸 河滩인데, 麻线河 舊橋에서 남쪽으로 약 83m, 新橋에서 북쪽으로 약 110m 떨어진 강 둔치로 서쪽에는 둔치보다 약 2.7m 높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다. 동남쪽 456m에 천추총, 서남쪽 1,149m에 서대묘가 위치한다.

马绍彬의 신고를 받은 集安市文物局은 8월 14일에 ‘研究领导小组’를 조직하여 156자 판독문 (10. 6), 비문 모사도 (10. 7), 보고서 초안 (10. 9) 등을 작성하는 형태로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11월 5-6일에 專家委員會를 개최하여 조사내용을 검증하고 광개토왕대 전후의 고구려비임을 추인하였다. 그리고 專家論證會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비문 모사도를 재작성하고 (11. 7-8), 보고서 최종 원고를 작성하였다 (11. 2). 약 3개월에 걸친 비문 조사와 검증 작업을 일단락지은 것이다.

비석은 麻线郷 현지의 紅星 채석장에서 채취한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다. 편평한 장방형으로 위가 약간 좁고 아래가 넓다. 碑首는 圭形이며, 底部 양쪽 모서리는 둥그스름하며 중간에 碑臺에 비석을 세우기 위한 장부〔榑頭〕가 있다. 우상단 모서리가 조금 파손되었다. 비석은 残高 173cm, 너비 60.6-66.5cm, 두께 12.5-21cm이며, 하단 장부는 높이 15-19.5cm, 너비 42cm, 두께 21cm이고, 무게는 464.5kg이다.

비석은 正面과 背面에 비문을 새긴 2면비이다. 정면 下半部의 비문은 비교적 적게 마멸되었지만, 하천 쪽으로 옆어진 上半部는 많이 마멸되었다. 예서체로 비문을 음각했는데, 10행으로 I -Ⅹ행은 행당 22자, Ⅺ행은 20자로 총 218자이다. 파손된 오른쪽 상단의 10여자는 결락되었다. 뒷면은 심하게 마멸되어 中部에 겨우 한 행이 남아 있는데, 판독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위쪽으로 노출된데 따른 자연적 마멸인지 아니면 인위적 훼손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비문 내용을 처음 공개한 <中國文物報> (2013. 1. 4.) 에는 正面의 140자 판독문이 실려 있다 (<표 1>). 비문을 4 단락으로 나눈 다음, <廣開土王陵碑> (이하 ‘능비’ 로 줄임) 와 비교하여 광개토왕이 先王의 陵墓에 건립한 수묘비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보고서인 《集安高句麗碑》는 금년 4월 초 (간기는 2013년 1월) 에 간행되었는데, 156자 판독안을 제시하였다 (<표 1>). 광개토왕이 역대 先王을 위해 건립한 守墓碑의 하나로서 고국양왕 (=천추총) 을 위해 건립한 비석으로 파악하였다. 건립시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Ⅶ행 10-11자를 ‘戊子’ 로 추정하였다.

중국학자들의 논고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碑石 조사를 주도했던 耿鐵華 교수는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⁵ 판독안도 보고서 판독문을 바탕으로 8자를 추독하고, 14자를 추가 판독

〈표 1〉〈中國文物報〉 및 《集安高句麗碑》(보고서)의 판독문

	1	5	10	15	20
I	□□□□	世必授	天道自承	元王始祖	鄒牟王之創基也
II	□□□	子河伯之	孫神靈祐	護蔽蔭開	國辟土繼胤相承
III	□□□□□□	烟戶以此	河流四時	祭祀然而	□脩長烟
IV	□□□□	烟戶	□□□□	富足	□轉賣□□守墓者以銘
V	□□□□□□□□	置	□太王	□□□□	王神□□輿東西
VI	□□□□□□	追述先聖	功勳彌高	悠烈繼古	人之慷慨
VII	□□□□□□□□	自戊	□定律教	□發令其	脩復各於
VIII	□□□□	立碑銘其	烟戶頭廿	人名以示	後世自今以後
IX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轉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X	賣如有違令者後世□嗣□□看其碑文与其罪過				

(밑줄 없는 글자는 <中國文物報> 2013. 1. 4에 제시된 140자 판독문 밑줄 친 글자는 보고서 156자 판독문에 추가된 것, 진한 글자는 수정자)

하여 178자 판독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V행의 ‘國岡上太王’을 광개토왕으로 비정하고, VII행 10-11자를 ‘戊申’으로 판독하는 등 추가하거나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비석에 대한 고고조사를 총괄했던 孫仁杰 연구원은 보고서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발표하였다.⁶ 그는 한국고대사학회 학술회의에서 166자 판독안을 제시한 다음, 최종적으로 188자 판독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VII행 4-8자를 ‘丁卯歲刊石’으로 판독하여 건립시기를 장수왕 15년(427년)으로 보았고, V행 ‘國岡上太王’이나 VII행 ‘先聖’을 광개토왕으로 비정하고, 비석의 성격도 律令碑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孫仁杰의 견해는 張福有 研究員의 견해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⁷ 張福有도 VII행 4-8자를 ‘丁卯歲刊石’으로 판독하여 장수왕 15년에 건립되었다고 상정하였다. 그러면서 長壽王이 평양 迁都 이전에 건립한 定律碑라고 파악했다. 특히 처음에는 190자 판독안을 제안하였다가, VII행 1-3자에 ‘卅家’라는 2자만 刻字했다면서 217자로 상정하고 비문 전체를 추독하거나 판독하였다.

專家論證會에 참여했던 林灝, 徐建新, 魏存成 교수 등도 논고를 발표하였다. 林灝 교수는 정면 글자를 211자로 상정한 다음, 172자 판독안을 제시하였다. 비석 성격을 수묘비로 규정한 다음, VII행 4-8자를 ‘癸卯歲刊石’으로 판독하여 광개토왕 13년(403년)에 건립하였다고 보았다. V행 ‘國岡上太王’을 고국원왕으로 비정한 다음, VII행 10-11자도 ‘戊申’으로 판독하고 고국원왕 18년(348년)으로 보았다.⁸

徐建新 연구원은 160자 판독안을 제시한 다음, V행 ‘國岡上太王’을 광개토왕의 諡號로 보아 412-427년에 건립했다고 보았다. VII행 10-11자는 ‘戊申’으로 보아 守墓에 관한 律法이 광개토왕 18년(408년)에 제정되었다고 보고 비석의 성격은 ‘告誡碑’로 파악하였다.⁹ 魏存成 교수는 독자 판독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판독안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비석의 성격에 대해서는 장수왕이 ‘평양 천도 이전에 시조 鄒牟王之祭祀와 관련하여 건립한 石碑’로 보았다.¹⁰

이상과 같이 비석의 건립시기에 대한 중국학계의 견해는 광개토왕대설과 장수왕대설로 나뉜다. 비석 성격에 대해서도 守墓碑說, 律令碑說, 告誡碑說 등이 제기되었는데, 대체로 광개토왕대 논자는 守墓碑, 장수왕대 논자는 律令碑(定律碑)나 告誡碑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는 한국학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비석 건립시기와 관련하여 광개토왕대설과¹¹ 장수왕대설이¹² 대별되며, 성격에 대해서도 수묘비설과¹³ 율령비설[敎令碑,¹⁴ 文告碑¹⁵], 수묘제 선포비설¹⁶ 등이 제시되었다.

2. 〈集安高句麗碑〉의 판독문과 단락 구성

1) 〈集安高句麗碑〉의 비문 판독안

비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판독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먼저 보고서 판독문과 여러 탁본 사진을 종합하여 비문 판독안을 제안하고자 한다.¹⁷ <표 2>는 보고서의 156자 판독문을 바탕으로 여러 판독안을 종합한 것이다. 보고서 판독문에 대해 다양한 異見이 제기되고 있지만, Ⅱ행 11-14자의 ‘祐護蔽蔭’, Ⅲ-18자의 ‘而’, Ⅶ-13자의 ‘律’, Ⅸ-11자의 ‘轉’, Ⅹ-8자의 ‘世’ 등은 보고서 판독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몇 글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Ⅲ-10자 (此: 報告書 判讀案, 以下 同一)’는 현재로서는 판독하기 힘들다. Ⅲ-20자 (脩)는 <표 3>에서 보듯이 ‘悠’의 예서나 해서에 더 가깝다. Ⅳ-12자 (足)는 Ⅸ-15의 ‘足’과 자형이 다르며, ‘買’의 ‘𠂔’에 해당하는 자획이 읽히므로 ‘買’일 가능성이 높다. Ⅳ-12자를 ‘買’로 판독하면, Ⅳ-12자는 ‘買’에 조응하는 ‘當’일 가능성이 높다. Ⅴ-8자 (罌)는 ‘岡’의 예서에 해당한다. Ⅴ-20자 (興)는 상단의 점은 흠집으로 확인되며 ‘興’자일 가능성이 높다. ‘興’의 예서체 중에는 ‘同’자획의 상단에 ‘丿’을 부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표 3>).

Ⅶ-15자 (悠)는 하단이 ‘𠂔’에 가까우며, 상단의 ‘丿’변과 우변 사이에 ‘悠’의 종선 자획을 찾기 힘들므로 ‘然’자로 수정 판독한다. Ⅶ-18자 (其)는 다른 ‘其’자와 자형이 다르고, Ⅸ-9자와 비슷하므로 ‘更’자로 수정 판독한다. Ⅷ-15자 (以)는 비문 내의 다른 ‘以’자와 자형이 명확히 다르다. 중앙에 종선이 있고 그 좌우에 ‘丿’자획이 확인되는데, ‘垂’의 예서체와 유사하다 (<표 3>). 더욱이 ‘垂示’라는 표현이 일찍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이에 Ⅷ-15자는 ‘垂’로 수정 판독한다.

Ⅸ-8자 (自)는 다른 ‘自’자와 자형이 다르고 Ⅸ-22의 ‘買’자와 비슷하다. 실제 Ⅸ-8자 상단에는 ‘買’자의 ‘𠂔’자획이 확인된다. Ⅹ-3자 (有)는 상단에서 ‘若’자의 ‘𠂔’, 하단에서는 ‘口’자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Ⅹ-3자를 ‘若’으로 수정 판독하면 Ⅹ-2자를 ‘如’로 판독하기는 힘들다. 于拓B를 통해 ‘口’의 윤곽선 및 그 내부의 ‘大’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Ⅹ-2자는 ‘因’으로 수정 판독한다.

이상을 통해 보고서 판독문 156자 중 Ⅲ-10자는 難讀字, Ⅲ-20자는 ‘悠’, Ⅳ행 11-12자는 ‘當買’, Ⅴ-8자는 ‘岡’, Ⅴ-20자는 ‘興’, Ⅶ-15자는 ‘然’, Ⅶ-18자는 ‘更’, Ⅷ-15자는 ‘垂’, Ⅸ-8자는 ‘買’, Ⅹ행 2-3자는 ‘因若’ 등으로 12자를 수정 판독하였다. 다음으로 미판독자 가운데 추가로 판독할 여지가 있는 글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孫仁杰은 Ⅲ행 5-6자를 ‘各家’로 판독하였는데, Ⅲ-5자는 ‘各’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Ⅲ-6자는 중간에 ‘曰’자획이 보이며 그 아래 위로도 자획 흔적이 있다. Ⅲ행 7-8자에 ‘烟戶’라는 표현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家’보다는 ‘墓’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Ⅲ-19자는 孫仁杰의 견해처럼 ‘世’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Ⅳ-2자는 江拓2호에서 ‘守’자 자획이 읽힌다. Ⅳ행 8-10자는 ‘劣甚衰’의 예서나 초기 해서체에 가깝다. Ⅳ-16자는 ‘數’자의 초기 해서체일 가능성이 높다.

Ⅴ-6자는 ‘王’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로획이 끊긴 현상도 발견되므로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Ⅴ-7자는 비석 관찰을 통해 ‘國’자의 테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Ⅴ-9자는 ‘上’자, Ⅴ-13자는 ‘平’자의 자획을 확인할 수 있다. Ⅴ-15자는 ‘太’, ‘元’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太’의 ‘丿’자획은 흠집으로 보인다. 상단 가로획은 Ⅰ-12 ‘元’자와 비슷하며, 하단 오른쪽 가로획은 ‘乚’모양이다. Ⅴ-15자는 ‘元’자와 ‘太’자일 가능성이 모두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

〈표 2〉〈集安高句麗碑〉판독안 종합¹⁸

X	IX	VIII	VII	VI	V	IV	III	II	I	
賣	守	[先abg]	(丁c)	(廟d) (南e)	□	[戶]	□	[日bc] [天bg]	□	1
如 (其d) (向g)	墓	[王abg]	□	□	□	(守c) (亦g)	□	[月bc] [帝g]	□	2
有 (若e#)	之	[墓abg]	□	□	□	□	□	[之bcg]	□	3
違	民	[上abg]	(好d) (丁ag) (癸h)	□ (巡*)	□	□	□	子	□	4
令	不	立	(太d) (卯a*)	(世c) (故*)	□	烟	(各a#) (宏e)	河	世	5
者	得	碑	(聖d) (太e) (歲a*)	(室d) (國a#)	(唯b*) (王d) (主e)	戶	(家a#) (墓c) (定d)	伯	必	6
後	擅	銘	(王cd) (刊a*)	追	(國ab #)	[羸c] (爲g)	烟	之	授	7
世 (立e) (王e)	自 (買cgi)	其	(曰cd) (因e) (石a#)	述	罍 (岡c)	(劣c) (規a) (禁g)	戶	孫	天	8
(繼abg)	更	烟	自	先	(上ab gi)	(甚c) (禁a) (舊g)	以	神	道	9
嗣	相	戶	戊	聖	太	(衰c) (有a) (民g)	此 (安d, ◎f)	靈	自	10
[之agi] [并b] [守d]	轉 (擅egi)	頭	(子ac) (午d) (申b#)	功	王	富 (當c) (露e)	河	祐 (祚e) (於e)	承	11
(者ag) (罰b) (墓d)	賣	廿	定	勳	(號ag) (國bd)	足 (買c) (衰e) (庶g)	流	護 (甄e)	元	12
看	雖	人	律 (神e)	彌	(平ag) (乎h)	(者a) (家d) (擅g)	四	蔽 (假agi) (微, 蔑e)	王	13
其	富	名	教	高	(安ag)	轉	時	蔭 (熊e)	始	14
碑	足	以 (垂c) (銘e) (宣g)	(言ag) (遣b) (內ci)	悠 (然*)	(太a*) (元ce)	賣	祭	開	祖	15
文	之	示	發	烈	王	(轉a) (韓bg) (數d)	祀	國	鄒	16
与	者	後	令	繼	神	(買a) (穢bg) (衆d)	然	辟	牟	17

其	亦	世	其 (更c) (並g)	古	(武a*) (寧c) (亡e)	守	而 (萬a*)	土	王	18
罪	不	自	脩	人	(乘acg) (求,喪e) (車h)	墓	(世a#) (其,與e)	繼	之	19
过	得	今	復	之	興 (興e) (與i)	者	脩 (悠a#)	胤	創	20
	其	以	各	懔	東	以	長	相	基	21

V-20자가 ‘興’ 자라면 19자는 ‘求’ 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래쪽 자획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한다. V-18자는 ‘亡’ 자일 가능성이 높다. VI-1자는 전체적으로 ‘廟’ 에 가깝지만, ‘朝’ 자획은 불분명하다. 오히려 하단 중앙 부분은 ‘南’ 자 자획에 더 가까우므로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 VI-6자는 윤용구 박사의 견해대로 ‘室’ 자일 가능성이 높다. VI-5자는 周拓A나 江拓2호에서 ‘世’ 자로 읽히는데, 비석 관찰을 통해서 ‘世’ 의 ‘卅’ 자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I행 5-6를 ‘世室’ 로 판독한다.

중국학자들은 VII행 4-5자를 ‘丁卯’ 나 ‘癸卯’ 로 판독한 다음, 비석 건립연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VII-4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好’ 자임이 거의 명확하다. 그 다음 글자는 ‘太’, 7-8자는 ‘王曰’ 로 판독된다. ‘王’ 자 하단의 우측 자획은 缺落되었다. 또한 ‘曰’ 자는 약간 비스듬하고 상단의 왼쪽이 약간 트여 있지만, 이와 유사한 ‘曰’ 의 예서체가 다수 확인된다. VII행 4-8자는 ‘好太□王曰’ 로 판독된다.

오히려 VII행의 중심 축선을 따라 올라가면 제1자 지점에서 干支의 일부인 ‘丁’ 자를 읽을 수 있다. 다만 2-3자의 자획이 불분명하여 干支 전체를 판독하기 힘들다.¹⁹ 干支의 일부인 VII-11자도 ‘子’, ‘午’, ‘申’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중간 가로획이 II-4의 ‘子’ 처럼 가로로 길며, 하단의 종선은 흠집에 가깝다는 점에서 ‘子’ 자로 판독한다. 그리고 VII-15자는 탁본에 보이는 대로 ‘丙’, X-9자는 ‘繼’ 자로 판독된다.

이상을 통해 III행 5-6자는 ‘各墓’, III-19자는 ‘世’, IV-2자는 ‘守’, IV행 8-10자는 ‘劣甚衰’, IV-16자는 ‘數’, V-7자는 ‘國’, V-8자는 ‘上’, V-13자는 ‘平’, V-18자는 ‘亡’, VII행 5-6자는 ‘世室’, VII-1자는 ‘丁’, VII행 4-5자는 ‘好太’, VII행 7-8자는 ‘王曰’, VII-11자는 ‘子’, VII-15자는 ‘丙’, X-9자는 ‘繼’ 등 총 22자를 추가 판독하였다. 그리고 V행의 6·15·19자, VII-1자 등 4자는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

한편 비문의 다른 구절이나 능비, <모두루묘지> 등과의 비교를 통해 推讀할 수 있는 글자도 있다. 가령 비문 내에서 ‘烟戶’ 는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烟’ 자 다음인 IV-1자도 ‘戶’ 로 추독할 수 있다. II행 1-8자의 ‘□□□子, 河伯之孫’ 은 鄒牟王의 출자를 표현한 부분인데, 능비에는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모두루묘지>에는 ‘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등으로 나온다. ‘河伯之孫’ 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II행 1-3자는 <모두루묘지>처럼 ‘[日月之]’ 자로 추독할 수 있다.

VII-VIII행의 ‘各於’ □□□□立碑, 銘其烟戶頭廿人名, 以示後世’ 는 능비 말미의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양자를 대비하면, VIII행 1-4자는 비석 건립 장소로서 능비의 ‘祖先王墓’ 에 대응된다. 孫仁杰, 耿鐵華는 VIII-4자에 ‘上’ 자

의 일부 자획이 남아 있다고 보아 ‘先王墓上’으로 추독했는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상을 통해 Ⅱ행 1 - 3자의 ‘〔日月之〕’, Ⅳ행 1자의 ‘〔戶〕’, Ⅷ행 1 - 4자의 ‘先王墓上’ 등 8자를 추독할 수 있었다.²⁰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판독문 156자 가운데 12자를 수정하고 (1자는 難讀字로 처리), 22자를 추가로 판독하고, 8자를 추독하였다. 또한 추독자 2자를 포함하여 6자는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2자는 난독자로 처리하였다. 177자를 판독하고 8자를 추독한 185자 판독안을 <표 4>와 같이 제안한다.

<표 4> <集安高句麗碑> 판독문 시안

X	Ⅸ	Ⅷ	Ⅶ	Ⅵ	V	Ⅳ	Ⅲ	Ⅱ	I	
賣	守	〔先ab〕	(丁c)	(△)	□	〔戶〕	□	〔日〕	□	1
(因c)	墓	〔王ab〕	□	□	□	(守c)	□	〔月〕	□	2
(若e)	之	〔墓ab〕	□	□	□	□	□	〔之〕	□	3
違	民	〔上ab〕	(好d)	□	□	□	□	子	□	4
令	不	立	(太d)	(世c)	□	烟	(各a)	河	世	5
者	得	碑	〔△〕	(室d)	(△)	戶	(墓c)	伯	必	6
後	擅	銘	(王cd)	追	(國ab)	〔△〕	烟	之	授	7
世	(買c)	其	(曰cd)	述	(圖c)	(劣c)	戶	孫	天	8
(繼ab)	更	烟	自	先	(上ab)	(甚c)	以	神	道	9
嗣	相	戶	戊	聖	太	(衰c)	(◎f)	靈	自	10
◎	轉	頭	(子ac)	功	王	(當c)	河	祐	承	11
◎	賣	廿	定	勳	□	(買c)	流	護	元	12
看	雖	人	律	彌	(平a)	□	四	蔽	王	13
其	富	名	教	高	□	轉	時	蔭	始	14
碑	足	(垂c)	(內c)	(俎*)	(△)	賣	祭	開	祖	15
文	之	示	發	烈	王	(數d)	祀	國	鄒	16
与	者	後	令	繼	神	□	然	辟	牟	17
其	亦	世	(更c)	古	(亡e)	守	而	土	王	18
罪	不	自	脩	人	(△)	墓	(世a)	繼	之	19
过	得	今	復	之	(興e)	者	(悠a)	胤	創	20
	其	以	各	慷	东	以	長	相	基	21
	買	後	於	慨	西	銘	烟	承	也	22

(): 수정자, (): 추가 판독자, []: 추독자, △: 판단 유보자, ◎: 難讀字, □: 미판독자
a 孫仁杰, b 耿鐵華, c 余昊奎, d 尹龍九, e(V -18자: 고평의, V -20자: 윤재석, X - 3: 노중국 · 이경미), * 張福有 · 林溪

판단 유보자의 후보안

Ⅳ - 7: 〔羸〕, V - 6: 王, V -15: 元 · 太, V -19: 求, Ⅵ - 1: 廟 · 南, Ⅶ - 6: 〔聖〕

2) <集安高句麗碑>의 단락 구성

상기 판독문을 일독하면 Ⅰ - Ⅱ행은 고구려의 開國과 王位繼承, Ⅲ - X행은 王陵 守墓 관련 사항 등을 기술했음을 쉽게 간취할 수 있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도 고구려의 건국과 왕위계승을 기술한 序頭, 광개토왕의 勳績 기사, 守墓人烟戶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勳績 기사를 제외한다면, 양자 모두 序頭와

守墓烟戶條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표 5>는 集安碑와 능비의 기술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I - II 행은 고구려의 開國과 王位繼承을 서술한 서문에 해당한다. III - X 행은 守墓烟戶와 관련된 부분으로 본문에 해당하는데, VII - X 행이 ‘(好太) △王’의 教言을 기술한 것이라면, 그 앞의 III - VI 행은 守墓制의 시행과 변천을 기술했다. 이 비석은 크게 서문 (I - II 행: A) 과 본문 (III - X 행: B) 으로 대별되고, 본문은 다시 守墓制의 전개 (III - VI 행: B1) 및 ‘好太△王’의 教言 (VII - X 행: B2) 등으로 세분된다.

서두인 I - II 행은 능비 서두의 서술 순서와²¹ 거의 일치하는데, <표 5>에서 보듯이 시조 추모왕의 건국사실 선언 (I 행: A-㉠), 시조의 출자와 건국 (II 행 1-18자: A-㉡), 왕위 계승 (II 행 19-22자: A-㉢) 등 세 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왕릉 수묘제의 시행과 변천을 기술한 B1은 판독 불능자가 많아 단락을 세분하기 힘들다. 다만 III 행 초중반부는 수묘제의 시행과 이에 따른 왕릉제사의 거행 등을 기술한 반면, IV 행은 수묘제의 문란상 (守墓烟戶의 상태가 ‘劣甚衰’ 해짐) 과 모종의 대책 (守墓者를 어딘가에 새김) 을 서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III - IV 행은 역접 접속사인 III 행 17-18의 ‘然而’를 기준으로 두 단락으로 세분할 수 있다.

V 행 7-11자의 ‘國(岡)上太王’은 故國原王 (331-371년) 으로 비정되는데, V 행 17-18자가 ‘神亡’으로 판독되므로 공적보다는 제사 관련 사항을 기술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V -20자는 ‘興’, VI 행 5-6자가 宗廟를 뜻하는 ‘世室’로²² 판독되므로 V - VI 행의 ‘東西△□□□ (世室)’은 새롭게 作興한 제사시설이며, 그 다음의 VI 행 7-22자는 새로운 제사시설에 先王[先聖]의 공훈을 추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V - 3 자에서 VI 행 말미는 守墓制 문란에 따른 왕릉 제사시설의 망실[神亡] 및 새로운 제사시설의 作興과 선왕의 공훈을 추술한 부분으로 파악된다.

B1도 수묘제 시행과 왕릉제사 거행 (III 행 1-16자: B1-㉠), 수묘제의 문란과 수묘자에 대한 조치 (III 행 17자 - V 행 2자: B1-㉡), 제사시설의 망실과 作興 (V 행 3자 - VI 행 22자: B1-㉢) 등 3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다.

‘(好太) △王’의 教言을 기술한 B2는 干支의 일부인 VII - 1 자 (丁) 부터 시작된다. 이 가운데 VII 행 9-20자는 律의 제정과 令의 발포를 통해 守墓制를 修復했음을 총괄하여 기술한 부분이다. 그 다음 부분은 역대 왕릉의 수묘비 건립 (VII 행 21자 - VIII 행 18자) 과 수묘연호 매매 금지 및 처벌규정 (VIII 행 19자 - X 행 20자) 등으로 양분된다. B2도 律의 제정과 令의 발포 (B2-㉠), 守墓碑 건립 (B2-㉡), 수묘연호 매매금지 및 처벌규정 (B2-㉢) 등 3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集安高句麗碑>는 크게 고구려 건국과 왕위계승을 기술한 서문 (I - II 행: A) 과 수묘제를 기술한 본문 (III - X 행: B) 으로 대별되며, 본문은 다시 수묘제의 시행과 변천을 기술한 단락 (III - VI 행: B1) 과 ‘好太△王’의 教言을 기술한 단락 (VII - X 행: B2) 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표 5〉〈集安高句麗碑〉와 〈광개토왕릉비〉의 기술내용 비교²³

<集安高句麗碑>		<광개토왕릉비>	비고
A	㉠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Ⅰ행 1 -22자)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1면)	건국 원천, 건국사실 선언
	㉡ 〔日月之〕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Ⅱ행 1 -18자)	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巡幸南下，路由夫餘 奄里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爲我連葭浮龜。應聲卽爲」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 而建都焉。(1면)	시조의 출자, 건국 과정
	㉢ 繼胤相承。(Ⅲ행 19-22자)	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岡，履」龍頁昇天。顧命世子 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逕至十七世孫(1면)	왕位 繼承
B1	㉠ □□□□各墓烟戶，以◎河流，四時祭祀。(Ⅲ행 1 -16자)	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守墓洒掃，(4면)	守墓制 시행, 王陵祭祀
	㉡ 然而世悠長，烟」〔戶〕守□□，烟戶△劣甚哀，當買□轉賣數，□守墓者以銘」□□。(Ⅲ행 17자 -Ⅴ행 2자)	吾慮舊民轉當羸劣。(중략)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4면)	수묘제 문란, 수묘자에 대한 조치
	㉢ □□□△，國岡上太王，□平□△王神亡，□興東西」△□□□世室，追述先聖功勳，彌高倬烈，繼古人之慷慨。」(Ⅴ행 3자 -Ⅵ행 22자)		제사시설 망실 제사시설 作興
B2	㉠ 丁□□好太△王曰，自戊子定律，教內發令，更脩復。(Ⅶ행 1 -20자)	又制 (4면)	律 제정, 승 발포
	㉡ 各於」〔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垂示後世。(Ⅶ행 21자 -Ⅷ행 18자)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4면)	守墓碑 건립
	㉢ 自今以後，」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轉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賣，因若違令者，後世繼嗣◎◎，看其碑文，与其罪过。(Ⅷ행 19자 -Ⅹ행 20자)	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4면)	守墓烟戶 매매금지 및 처벌 규정

〈표 6〉〈集安高句麗碑〉의 단락 구성과 번역문 시안

A (I - II 행)

㉠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 始祖鄒牟王之創基也。」(I 1-22 자)

㉡ [日月之]子, 河伯之孫, 神靈祐護蔽蔭, 開國辟土。(II 1-18 자)

㉢ 繼胤相承。(II 19-22 자)

<㉠ □□□□世, 필연적으로 天道를 내려주시니, 스스로 元王을 계승하여,始祖 鄒牟王이 나라를 개창하셨도다. ㉡ 日月之子, 河伯之孫으로서 神靈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 나라를 건국하고 강토를 개척하셨다. ㉢ 後嗣로 이어져 서로 계승하였다.>

B1 < III - VI 행)

㉠ □□□□(各墓)烟戶, 以(◎)河流, 四時祭祀。(III 1-16 자)

㉡ 然而(世)(悠)長, 烟戶[戶](守)□□, 烟戶△(劣甚衰), (當買)□轉賣數, □守墓者以銘□□。(III 17 자 - V 2 자 전후)

㉢ □□□△, (國)(岡)(上)太王, □(平)□△王神(亡), □(興)東西△□□□(世室), 追述先聖功勳, 彌高(悠)烈, 繼古人之慷慨。」(V 3 자 - VI 22 자)

<㉠ □□□□各墓烟戶, 以◎河流, 四時에 祭祀를 거행하였다. ㉡ 그렇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烟戶守□□, 烟戶가 ‘△劣甚衰’해져 팔리거나 되팔리는 자가 많아졌다. 이에 守墓者를 □하여 □□에 새겼다. ㉢ □□□△, 國岡上太王, □平□△王神亡, ‘東西’△□□□世室’을 作興하고, ‘先聖의 功勳이 아주 높고 매우 빛나며 古人의 군센 의지를 계승하였다’고 追述하였다.>

B2 (VII - X 행)

㉠ 丁□□(好太△王曰), 自戊(子)定律, 教(內)發令, (更)脩復。(VII 1-20 자)

㉡ 各於[先王墓上], 立碑, 銘其烟戶頭廿人名, 垂示後世。(VII 21 자 - VIII 18 자)

㉢ 自今以後, 守墓之民, 不得擅(買)更相轉賣, 雖富足之者, 亦不得其買」賣, (因若)違令者, 後世(繼)嗣◎◎, 看其碑文, 与其罪过。(VIII 19 자 - X 20 자)

<㉠ 丁□년에 好太△王이 이르시기를 “戊子年에 律을 制定한 이래 朝廷에 敎하여 令을 발포하여 다시 修復하였다. ㉡ 각 先王의 墓上에 비석을 건립하고 烟戶頭 20명의 명단을 새겨 후세에 전한다. ㉢ 지금 이후로 守墓之民은 함부로 사거나 다시 서로 되팔지 못하며, 비록 富足之者라도 買賣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令을 어긴 자는 후세토록 ◎◎를 繼嗣하도록 하고, 碑文을 보아 罪过를 부여한다.”>

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내용 검토

1)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

그럼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비석 건립시기부터 검토해보자. 전술하였듯이 비석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광개토왕대설과 장수왕대설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B2-㉢의 “各[先王墓上]에 비석을 세우고 그 烟戶頭 20명의 이름을 새겨 후세에 전한다.”는 구절이다. 이는 능비의 “오직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만이 모든 祖先王을 위하여 墓上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差錯되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구절에 상응한 표현이다. 능비의 ‘盡爲祖先王, 墓上立碑’가 ‘各於[先王墓上], 立碑’로 변형되었지만, 兩者 모두 歷代 先王의 王陵에 비석을 건립한 사실을 담고 있다. 이로 보아 광개토왕이 처음으로 역대 先王의 왕릉에 수묘연호의 명단을 새긴 石碑를 세웠고, 이 비석은 그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碑石 建立에 관한 敎言을 내린 王名이 ‘好太△王(VII행 4-7 자)’으로 판독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광개토왕의 왕호에 ‘好太王’이 포함되어 있고, 광개토왕 이후 明治好王(문자명왕), 陽崗上好王(양원왕), 平崗上好王(평원왕) 등의 ‘好王’도 ‘好太王’의 줄임말로 추정

된다.²⁴ ‘好太王’으로 불린 왕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에서 Ⅶ행의 ‘好太△王’을 곧바로 광개토왕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Ⅴ행 7-11자의 ‘國岡上太王’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國岡上太王’은 특정한 왕을 지칭하는데, Ⅶ행의 ‘好太△王’과 명칭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왕일 것이다. <牟頭婁墓誌>에도 ‘△岡上聖太王’이라는 왕명이 나오는데, 故國原王으로 비정된다.²⁵ 고국원왕이 ‘國罌上王’으로 불린 사실은 다른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되므로²⁶ Ⅴ행의 ‘國岡上太王’은 고국원왕으로 파악된다.²⁷

‘國岡上太王’이라는 왕명은 고국원왕릉을 ‘國岡上’ 입지조건에 처음 조성한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고국원왕 이후 고국양왕이나 광개토왕도 ‘國岡上’에 왕릉을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원왕을 ‘國岡上太王’으로 특칭한 데는 다른 왕명과 혼동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國岡上’ 입지조건에 처음 왕릉을 조성한 고국원왕만 ‘國岡上太王’으로 지칭하고, 그 이후 ‘國岡上’에 왕릉을 조성한 왕은 ‘國岡上’ 이외에 治積 등 다른 호칭을 부가하여 왕명을 부여함으로써 구별하였던 것이다.²⁸

이렇게 본다면 Ⅶ행의 ‘好太△王’도 종전의 ‘太王’號에 ‘好’자와 ‘△〔聖〕’을 가미한 왕을 지칭한다고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전하는 사료상 ‘好太王’이라는 호칭은 광개토왕의 왕호에 처음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太王陵 출토 청동방울의 “辛卯年 好大王 敎造鈴九十六”이라는 명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이 방울의 好大王은 好太王과 동일한 표현인데, 고국양왕설도 제기되었지만 대체로 광개토왕으로 비정한다.³⁰

필자는 종전에 이 방울의 ‘好大王’이 生號인지 諡號인지 판단을 유보한 채, 고국양왕의 沒年이자 광개토왕의 즉위년인 391년〔辛卯年〕에 제작된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그런데 Ⅶ행의 ‘好太△王’이라는 구절을 참조하면 이 방울의 ‘好大王’은 生號이며, 이 경우 광개토왕을 지칭한다고 파악된다.³¹ 즉 이 방울은 광개토왕이 391년에 父王인 故國壤王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비석 건립과 관련한 敎言을 내린 ‘好太△王’은 광개토왕으로 파악할 수 있다.³²

Ⅶ행의 서두는 제1자가 干支의 일부인 ‘丁’자이므로 그 문장구성을 干支(丁□□)+王名(好太□王)+曰…’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장은 상기한 태왕릉 출토 청동방울 명문이나 瑞鳳冢 출토 銀盒杆 명문에서도³³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당시 고구려에 중국왕조의 策書 서식과 유사한 ‘干支(年度)+王名+曰〔敎〕…’라는 문장형식이³⁴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Ⅶ행 첫머리의 ‘丁□’은 광개토왕이 敎言을 내린 연도 곧 이 비석의 건립 시점인 것이다.³⁵ 따라서 이 비석은 광개토왕 재위기의 丁酉年(397년)이나 丁未年(407년)에 건립했다고 추정된다.³⁶

이와 관련하여 Ⅶ행 9-20자의 “自戊□定律, 敎內發令, 更脩復.”라는 구절도 주목된다. 여기의 ‘自’는 特定時點이 아니라 起點을 나타내므로³⁷ ‘戊□’를 반드시 비석이 건립된 광개토왕대의 干支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戊’자가 들어간 광개토왕대의 간지는 ‘戊戌(398년)’과 ‘戊申(408년)’이 있는데, 탁본의 자획상 모두 성립하기 힘들다. 또한 ‘戊午’로 읽는다면 358년(고국원왕 28)이나 418년(장수왕 6)으로 보아야 하는데, 418년은 비석 건립 이후로서 성립할 수 없다. 358년도 고구려가 律令을 반포한 373년(소수림왕 3년) 이전이라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Ⅶ행 10-11자는 ‘戊子’로서 고국양왕 5년(388년)에 해당한다고 파악된다. Ⅶ행 9-20자는 “388년(戊子年)에 고국양왕이 제정한 律을 근거로 광개토왕이 朝廷에³⁸ 敎를 내려 令을 發布하여 守墓制를 다시 修復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이로 보아 守墓制 修復을 위한 조치 중에는 광개토왕이 시행한 것도 있지만, 고국양왕대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 고국양왕 말년에는 國社를 建立하고 宗廟를 修建했다.³⁹ 고국양왕대에 수묘제 등 국가 제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인데, 이는 388년에 제정한 律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集安高句麗碑>는 광개토왕이 丁□年 (397년 또는 407년) 에 戊子年 (388년) 의 律을 바탕으로 역대 선왕의 王陵에 건립한 守墓碑의 하나로 파악된다.

2) 고구려 건국설화에 관한 신지전

이 비석에는 고구려 건국설화나 수묘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온다.

먼저 서문 가운데 시조 추모왕의 출자를 서술한 A-㉔의 ‘[日月之]子, 河伯之孫’은 능비나 <모두루 묘지>에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그 다음의 ‘神靈祐護蔽蔭, 開國辟土.’는 추모왕의 開國과정을 압축하여 기술하였는데, 능비나 다른 사료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A-㉔의 ‘繼胤相承.’은 추모왕 이래 왕위가 면면이 이어졌음을 나타낸 부분인데, 능비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반면 A-㉕의 경우, ‘始祖鄒牟王之創基也.’는 능비에 동일한 구절이 나오지만, 그 앞의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은 종전에는 보이지 않던 표현이다.

- ①乃告於衆曰 我方承景命, 欲啓元基, 而適遇此三賢, 豈非天賜乎? (《三國史記》고구려본기 1 동명성왕 즉위년조)
- ②對曰 此天之與物, 何爲不取乎. 夫大王困於扶余, 誰謂大王能至於此. 今大王奮身於萬死之危, 揚名於遼左, 此天帝命而爲之, 何事不成. (《東國李相國集》<東明王篇>)
- ③夫百濟太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 天帝授籙, 摠諸韓而稱王. (<續日本記> 권40 桓武天皇 延曆九年 秋七月)

상기 사료는 고구려 건국설화의 일부인데, ①은 “내[주몽]가 天命을 계승하여 나라의 기틀을 열고자 한다”로 풀이된다. ②는 “이는 天帝가 命하여 하는 것이니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라는 뜻이다. ③은 “天帝가 符命之書를 주셔서 여러 韓을 총괄하고 왕을 칭하게 되었다”라고 해석된다. 상기 사료는 추모왕이 天命[景命]을 계승하거나 天帝의 符命之書를 수여받아 고구려를 개국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로 보아 A-㉕ 가운데 ‘必授天道’는 ③의 ‘天帝授籙’, 그리고 ‘自承元王’은 ①의 ‘方承景命’과 유사한 표현으로 고구려 건국의 원천을 기술한 부분으로 파악된다.

‘籙’이나 ‘景命’등으로 표현되는 受命之符論을 체계화한 것은 前漢의 董仲舒인데, 황제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일종의 王權神授說이다.⁴⁰ 董仲舒는 종전의 天道論을 陰陽五行說과 결합시키면서 ‘元氣’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는 ‘元’을 ‘萬物의 本源’이자 사람의 근본이 있는 ‘근원적 존재’로 파악하였다.⁴¹ 또한 ‘天’은 萬物의 祖라면서⁴² ‘元’과 동일시하고 있다. 天과 元을 萬物의 本源이자 祖로서 신비한 造物主 역할을 하면서 萬物과 그 발전 규칙을 관장하는 존재로 설정한 것이다.⁴³

이로 보아 A-㉕의 ‘天道’와 ‘元王’은 董仲舒의 天道論과 元氣論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董仲舒에게 있어서 天道는 인간세상의 운영원리인 人道的 근거로 설정되고 있다.⁴⁴ 따라서 ‘必授天道’는 만물의 조물주인 元=天이 인간세상을 운영하는 근거인 ‘天道’를 수여했다는 뜻으로서, ‘天帝授籙(③)’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元王’은 만물의 본원을 뜻하는 ‘元’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天帝’에 상응하는 표현이며, 고구려 건국원천의 深源性을 나타내기 위한 造語로 파악된다.⁴⁵

A-㉕은 漢代의 유학사상을 빌어 고구려 건국의 원천과 정당성을 기술한 부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능비의 ‘聖’이라는 표현을 ‘유교적 왕도정치’나⁴⁶ ‘聖인과 같은 통치능력’을⁴⁷ 뜻한다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능비 서두 ‘生而有聖’의 ‘聖’은 ‘儒敎的 聖德’을 뜻하며, A-㉕의 ‘天道’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능비 찬자가 A-㉕ 가운데 ‘惟始祖鄒牟王之創基也.’만 채택

하여 가장 서두에 건국사실의 선언을 기술하고, ‘□□□□世, 必授天道, 自承元王,’은 추모왕의 탄생 과정과 결합시켜 ‘割卵降世, 生而有聖, □□□□.’으로 서술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集安高句麗碑> 찬자는 漢代의 유학사상을 빌어 고구려의 건국원천을 기술하였다. 종래 고구려 건국설화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양상을 확인한 것이다.

3) 고구려 왕릉 守墓制에 관한 신지견

集安碑는 왕릉 수묘제에 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

먼저 Ⅲ행 1-16자의 ‘□□□□(各墓) 烟戶, 以◎河流, 四時祭祀.’라는 구절은 고구려에서도 守墓制의 시행과 더불어 王陵祭祀를 거행하였음을 잘 보여준다.⁴⁸ 이 가운데 四時祭祀라는 구절은 漢代의 능묘제사와 비교하면,⁴⁹ 매년 4회 거행한 便殿祭祀에 상응한다. 물론 이는 고구려가 陵墓祭祀를 거행하였다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실제로는 漢代의 陵園처럼 매일 4회 거행하는 寢殿의 上食, 매년 25회 거행하는 廟祭 등 다양한 제사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Ⅲ행의 ‘以◎河流’를 四時祭祀의 거행 장소로 보기는⁵⁰ 어렵다. 문장구조상 ‘以◎河流’는 바로 뒤의 ‘四時祭祀’와 병렬적인 표현일 경우와 이를 수식하는 경우로 나뉜다. 병렬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에 河流의 범람방지 등 陵墓 관리와 관련한 표현이 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제사거행과 관련한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데, 고구려인들이 ‘계곡 물[澗水]’를 飲用하였음을 고려하면 祭需用水나 上食 盥水 등을 하천수[河流]로 충당했음을 뜻할 가능성이 높다.⁵¹

Ⅲ-17자부터 Ⅴ-2자까지는 (B1-㉔) 수묘제의 문란과 그에 대한 대책을 기술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Ⅳ행 11-12자를 ‘當買’로 수정 판독하였는데, 수묘제 문란에 따른 수묘연호의 매매가 초기부터 買收와 轉賣를 되풀이하는 양상을 띠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매매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묘자를 어딘가에 새겼다고 하는데, ‘銘’ 다음 글자를 판독할 수 없어 새긴 장소(물건)는 알 수 없다.

한편 Ⅴ행에는 王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등장한다. 이 가운데 ‘國岡上太王’은 故國原王으로 비정되지만, 다른 ‘王’자는 불분명한 점이 많으므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Ⅶ행 5-6자의 ‘世室’이 ‘宗廟’를 뜻하므로 Ⅴ행 하단에서 Ⅶ-6자 부분은 王의 功勳보다는 王陵 제사시설의 망실[神亡]과 새로운 제사시설의 作興[△興]을 기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Ⅶ행 7-22자는 새로운 제사시설에 先王[先聖]의 공훈을 추술한 부분이다. 또한 고국양왕이 守墓律을 제정하고 國社·宗廟를 修建하였음을 고려하면, ‘世室[宗廟]’ 등의 作興도 고국양왕대에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왕실 祖先祭祀의 중심이 陵墓에서 宗廟로 변화하였다고 추정된다.⁵²

B2 단락은 수묘제를 수복하기 위해 광개토왕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많고 새로운 표현도 다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성과와⁵³ 대조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검토는 후일을 기약하고, 본 발표에서는 새롭게 인지한 사실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Ⅶ-1자의 ‘丁□’는 守墓制 修復을 매듭짓는 廣開土王의 敎言이 397년(丁酉)이나 407년(丁未)에 내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自戊子定律, 敎內發令, 更脩復.’라는 구절은 373년 율령 반포시에는 守墓制에 관한 律令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가, 388년(戊子年, 고국양왕 5)에 수묘제에 관한 律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敎令을 발포하여 수묘제를 수복하였음을 보여준다. 守墓에 관한 律과 令이 구별되어 있었고, 律이 일정 시점에 제정된 반면 令은 敎의 형태로 수시로 發布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능비에는 律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반면, 수묘연호의 매매 금지와 관련된 조치를 ‘又制’로 기술한 점이 주목된다. ‘制’는 ‘制書’의 略字로서 皇命의 형식 가운데 하나이므로 능비의

‘又制’와 Ⅶ행의 ‘教內發令’은 상응한 표현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능비에서는 수묘연호의 매매금지 조항만 制[教·令]의 형식으로 시행했다고 기술했지만, 수묘비 건립도 教·令[制]에 따른 조치임을 알 수 있다.

守墓烟戶制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구절은 Ⅶ-Ⅷ행의 “各於〔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垂示後世.”라는 구절이다. 비석 背面에 자획의 흔적이 있다고 하므로 연호의 명단은 뒷면에 새겼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 구절의 ‘各’은 능비의 ‘盡’에 상응하는데, 모든 先王의 王陵에 비석을 건립하였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 구절의 ‘烟戶頭’는 각 연호의 戶主 또는 수묘인 관리자를 지칭할 가능성이 모두 있다. 다만 후대 자료이지만 ‘戶頭’가 ‘戶主’를 뜻하는 용례가 다수 확인되며,⁵⁴ 20家を 단위로 수묘제를 시행한 사실도 확인된다.⁵⁵ 이에 ‘烟戶頭’를 각 수묘연호의 戶主로 파악하고, 각 王陵에는 수묘연호 20家を 배치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Ⅹ행의 매매금지 위반시의 처벌규정 가운데 ‘後世(繼) 嗣○○○’가 능비의 買人에 대한 조치[‘買人制令守墓之’]에 상응한다면, ‘看其碑文，與其罪過.’는 賣者에 대한 형벌[‘賣者刑之’]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其碑文’은 이 비석을 포함하여 각 王陵 수묘비의 背面을 지칭한다고 파악된다. 당시 수묘연호의 매매는 買收와 轉賣를 되풀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매매사실을 적발하더라도 賣者[수묘연호]가 본래 어느 王陵 소속인지 판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각 王陵 수묘비 背面의 명단과 대조하여 賣者[수묘연호]의 소속부터 파악한 다음 죄과를 부여했다고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碑石의 원위치와 陵域을 검토하고자 한다. 비석의 원위치는 발견지점 위쪽의 충적대지 일대로 파악된다.⁵⁶ 이 경우 이 비석이 어느 왕릉 守墓碑인지가 문제가 된다. 가장 가까운 왕릉급 고분인 천추총과의 거리도 456m나 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陵墓에서 40-100m 떨어진 陵塙까지를 陵域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이해방식으로는 이 비석이 어느 王陵에 건립된 守墓碑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비석 서쪽의 建疆村에서 발견된 건물지가 주목된다. 이 건물지는 북쪽 약 700-800m 거리의 마선구626호분과 관련된 시설로 파악되는데,⁵⁷ 이는 당시 陵域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이 비석이 어느 왕릉의 守墓碑인지 단정하기 힘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조사와 더불어 또 다른 왕릉 守墓碑의 발견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이상을 통해 보고서의 156자 판독문 가운데 12자를 수정하고, 22자를 추가 판독하고, 8자를 추독하여 185자 판독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능비와 대비하여 비문 구성을 고구려 건국과 왕위계승을 기술한 서문(Ⅰ-Ⅱ행)과 수묘제를 기술한 본문(Ⅲ-Ⅹ행)으로 대별하고, 본문은 다시 수묘제의 시행과 변천을 기술한 부분(Ⅲ-Ⅶ행)과 ‘好太△王’의 教言을 기술한 부분(Ⅶ-Ⅹ행)으로 세분하였다.

이 비석은 광개토왕이 고국양왕의 戊子年(388년) 律에 입각하여 歷代 先王의 王陵에 건립한 守墓碑의 하나로서 丁□년(397년 또는 407년)에 건립한 것이다. 비문을 통해 漢代의 유학사상을 빌어 건국설화를 분식한 사실, 수묘제 시행과 더불어 四時祭祀를 거행한 사실, 수묘제 문란으로 일찍부터 수묘연호가 매매되고 王陵 제사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자 世室[宗廟]과 같은 새로운 제사시설을 作興한 사실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광개토왕이 父王의 律에 입각하여 教·令을 발포하여 수묘비를 건립하고 수묘연호 매매를 금지하는 등 수묘제를 수복하였음도 파악하였다.

한편 필자의 견해대로 이 비석이 광개토왕대에 건립되었다면, 現存하는 最古의 高句麗碑가 된다. 더욱이 능비나 <충주고구려비>와 달리 당시 중국대륙에서 유행하던 圭形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純漢

文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고구려가 처음에는 중국대륙의 石碑와 文字 문화를 原型에 가깝게 수용한 다음, 이를 고구려의 전통과 결합시켜 독창적인 형태로 변용하던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구려가 중국대륙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변용하던 양상은 향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발표문은 비문과 원탁본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注

- 1 集文(集安市文物局), 2013 ‘吉林集安新见高句丽石碑’ <中國文物報>(2013. 1. 4, 2판)
- 2 이영호, 2013 <집안 고구려비의 발견과 소개> 《한국고대사연구》 69;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0
- 3 이 발표문은 여호규, 2013 앞의 글을 정리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4 集安市博物館 편저,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 出版部
- 5 耿鐵華, 2013a <集安高句麗碑捶拓與研究>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관련 한중일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13b <中国集安出土高句丽碑的真实性> 《한국고대사연구》 70; 2013c <集安高句麗碑考釋> 《通化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 2013-2; 耿鐵華·董峰, 2013d <新發現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 《社會科學戰線》 2013-5; 2013e <集安新出土高句麗碑的重要價值> 《東北史地》 2013-3
- 6 孫仁杰, 2013a <集安高句麗碑发现调查與捶拓>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관련 한중일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13b <集安高句麗碑识读與文字比較> 《한국고대사연구》 70; 2013c <集安高句麗碑文識讀> 《東北史地》 2013-3
- 7 張福有, 2013a <吉林集安高句麗碑碑文補釋> 《名家》 2013-2; 2013b ‘集安麻線高句麗碑碑文補釋’ <中國文物報>(2013. 4. 10); 2013c <集安麻線高句麗碑探綜> 《社會科學戰線》 2013-5; 2013d <集安麻線高句麗碑碑文補釋與識讀解析> 《東北史地》 2013-3
- 8 林溪,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小識> 《東北史地》 2013-3, 7-16쪽
- 9 徐建新, 2013 <中國新出“集安高句麗碑”試析> 《東北史地》 2013-3, 17-31쪽
- 10 魏存成, 2013 <關於新出集安高句麗碑的幾點思考> 《東北史地》 2013-3, 32-39쪽
- 11 이용현, 2013 <신발견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비교>; 조범중, 2013 <집안고구려비의 특성과 수묘제>(이상 고구려발해학회 59차 발표논문집, 2013. 2. 22) 및 금경숙, 2013 <새로 발견된 ‘지안고구려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동북아역사문제》(2013. 2. 25); 공석구, 2013 <고구려 수묘비의 발견과 몇 가지 해석> 《고구려발해연구》 45; 고광의, 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형태와 서체> 《고구려발해연구》 45; 여호규, 2013 앞의 글; 정호섭, 2013 <集安高句麗碑의 성격과 주변의 高句麗古墳> 《한국고대사연구》 70; 조우연, <집안고구려비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0; 이성제, 2013 <집안고구려비로 본 수묘제> 《한국고대사연구》 70
- 12 김현숙, 2013 <지안고구려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동북아역사문제》(2013. 2. 25). 한편 서영수, 2013 <‘지안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 《고구려발해연구》 45에서는 광개토왕대보다 후대에 건립되었다고 추정하였다.
- 13 공석구, 2013 앞의 글; 조범중, 2013 앞의 글; 여호규, 2013 앞의 글
- 14 김현숙, 2013 앞의 글; 정호섭, 2013 앞의 글
- 15 조우연, 2013 앞의 글
- 16 이성제, 2013 앞의 글
- 17 현재까지 확인된 碑石 正面 탁본은 15종인데(尹龍九,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拓本과 判讀> 《한국고대사연구》 70). 본 발표문의 판독안은 善本인 周榮順탁본A(‘周拓A’), 江化國·李光夫2호(‘江拓2호’), 于麗群탁본B(‘于拓B’) 등을 비교하고, 비석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背面의 명문은 판독하기 힘든 상태인데, 張福有는 중간에서 ‘□□國烟□守墓烟戶合廿家石工四烟戶頭六人’, 좌측 하단에서 ‘國六人’ 등을 판독하였고(張福有, 2013c 앞의 글, 18-19쪽), 孫仁杰이 摹寫圖를 작성한 바 있다(《東北史地》 2013-3 표지 내면).
- 18 □ : 미판독자, [] : 추독자(‘烟’자 다음은 [戶]로 추독), ◎ : 난독자
() : 추가 판독자, a 孫仁杰, b 耿鐵華, c 余昊奎, d 尹龍九, e 3월 9일 판독회, f 6월 1일 판독회, g 張福有, h 林溪, i 徐建新, # 張福有·林溪·徐建新, * 張福有·林溪
- 19 <표 3>에서 보듯이 周拓A, 江拓2호, 于拓B 등에서 Ⅶ행 1-2자 사이의 오른쪽에 ‘未’자와 유사한 자획이 확인되며, Ⅶ-2자 약간 아래쪽에 ‘中’자 또는 ‘年’의 예서와 비슷한 자획이 읽힌다. 다만 글자가 원위치에서 벗어나 있고, 흠집과 자획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판독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탁본 관찰 결과만 지적해 둔다.

- 20 Ⅳ행 5-10자를 ‘烟戶□(劣甚衰)’로 판독하였는데, 능비의 ‘吾慮舊民轉當羸劣’라는 표현과 대비하면, Ⅳ-7자를 ‘羸’로 推讀할 수 있다. Ⅶ-5자도 앞뒤의 글자가 ‘好太□王’으로 읽히므로 ‘聖’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2글자 모두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 21 여호규, 2011 <‘광개토왕릉비’의 서사구조와 武勳記事의 서술체계>《광개토대왕비와 탁본》(특별전 ‘문자, 그 이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국립중앙박물관), 14-17쪽
- 22 《周禮》考工記 匠人：“夏后氏世室，堂脩二七，廣四脩一。”鄭玄注：“世室者，宗廟也。”
- 23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I)》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참조.
- 24 임기환, 2002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28, 8-11쪽
- 25 武田幸男, 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330-335쪽
- 26 《三國史記》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즉위년조, 百濟本紀2 近仇首王 즉위년조
- 27 林滙, 2013 앞의 글, 15쪽
- 28 여호규, 2010a <고구려 태왕호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역사문화연구》35
- 2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集安高句麗王陵》文物出版社, 270-272쪽.
- 30 여러 견해는 여호규, 2010b <1990년대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의 출토현황과 연구동향>《한국고대사연구》57, 91-94쪽 참조.
- 31 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한국고대사연구》41, 126-127쪽
- 32 Ⅶ행의 ‘好太△王’을 ‘好太〔聖〕王’으로 推讀한다면, 고국양왕대에 ‘太王’號에 ‘好’자를 처음 가미하고, 광개토왕대에 다시 ‘聖’자를 추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33 노태돈, 1992 <瑞鳳冢出土銀盒杆銘文>《역주 한국고대금석문》(1)
- 34 蔡邕,《獨斷》(上)‘策書’; 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한국고대사학회 133회 발표회 발표문), 13쪽; 中村裕一, 2003《隋唐王言の研究》汲古書院, 28-30쪽
- 35 Ⅶ행 19-22자의 ‘自今以後’의 ‘今’은 ‘好太△王’이 敎言을 내린 시점으로서 이 비문에 명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은 Ⅶ행 1-3자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Ⅶ-1자는 간지의 일부인 ‘丁’자로 판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6 Ⅶ행 1-2자 사이의 ‘未’의 자획을 인정하면, ‘丁未年’ 곧 407년으로 볼 수 있다.
- 37 <廣開土王陵碑>: “八年戊戌, (중략) 自此以來, 朝貢論事.” 및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반면 특정한 시점을 표현할 때는 주로 ‘以’자를 사용하였다(“以甲寅年 九月廿九日乙酉 就山陵.” 및 “以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 38 2013년 4월 13일 한국고대사학회 학술회의에서 성균관대 권인한 교수가 ‘內’를 朝廷으로 해석한 바 있다.
- 39 《三國史記》高句麗本紀6 고국양왕 9년 3월조
- 40 劉國民, 2010 <先秦儒家思想發展的重要轉折>《齊魯學刊》2010-5, 30-32쪽
- 41 《春秋繁露》권3 玉英, 권5 重政: ‘故元者爲萬物之本, 而人之元在焉.’
- 42 《春秋繁露》권15 順命: ‘天者, 萬物之祖, 萬物非天不生.’
- 43 宋錫同, 2008 <漢代經學走向管窺>《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3-1
方軍, 2011 <天道與元氣>《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13-1, 27-29쪽
- 44 劉國民, 2007 <董仲舒以陰陽之天道解釋人道>《西南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6
- 45 ‘元’이 ‘元氣나 天’을 뜻하므로 ‘元王’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天王’이라 할 수 있다. <東明王篇>의 天王은 ‘元王’에 상응하는 표현인 것이다. 다만《春秋繁露》에서 ‘天王’은 ‘失政으로 天下를 잃어버린 왕’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권4 王道편 및 권5 重政편 등), 비석 찬자가 天王이라는 단어를 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 46 川崎晃, 2012 <高句麗廣開土王碑の基礎的考察>《古代學論究》慶應義塾大 出版部
- 47 조우연, 2010a <고구려 제천의례의 전개>《고구려발해연구》41, 63-65쪽
- 48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국가제사가 陵墓 제사에서 宗廟 제사로 변천했다고 파악한 최근 연구성과가 주목된다(강진원, 2008 <고구려 시조묘 제사 연구>《한국사론》54; 조우연, 2010b <고구려의 왕실 조상제사>《한국고대사연구》60).
- 49 楊寬, 2003《中國古代陵寢制度史研究》上海人民出版社; 郭善兵, 2004 <東漢皇帝宗廟禮制考論>《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6-3; 김택민, 2013 <중국 고대 守陵제도와 율령>《광개토왕비의 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
- 50 耿鐵華, 2013c 앞의 글, 3-5쪽; 孫仁杰, 2013c 앞의 글, 52쪽
- 51 徐建新, 2013 앞의 글, 27-28쪽에서도 ‘河流를 이용하여’로 해석하였다.
- 52 강진원, 2008 앞의 글, 41-42쪽; 공석구, 2013 앞의 글, 46쪽

- 53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고구려발해연구》 39; 정호섭, 2012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선사와고대》 37
- 54 《隋書》권24 食貨志: 《後漢書》권3 章帝 元和2년 5월조에 대한 唐 李賢의 附注; 宋 趙昇의 《朝野類要》권3 入仕 脚色조: 《天成令》 제30조: 王啓濤, 2012 ‘戶頭’ 《吐魯番出土文獻詞典》 巴蜀書社, 454쪽.
- 55 《三國史記》 고구려본기4 신대왕 15년조: 신라본기6 문무왕 4년조
- 56 集安市博物館 편저, 2013 앞의 책, 8쪽; 耿鐵華, 2013c 앞의 글, 3쪽
- 57 王志剛・顧聆博・張哲, 2012 <集安高句麗早期遺存研究新進展> 《東北史地》 2012-4, 7-10쪽

新発見 <集安高句麗碑>の判読と内容検討

余 昊奎 (韓國外國語大學校史學科)

はじめに

1. <集安高句麗碑>の調査と研究現況
 2. <集安高句麗碑>の判読文と段落構成
 - 1) <集安高句麗碑>の碑文判読案
 - 2) <集安高句麗碑>の段落構成
 3. <集安高句麗碑>の建立時期と内容検討
 - 1) <集安高句麗碑>の建立時期
 - 2) 高句麗建国説話に関する新知見
 - 3) 高句麗王陵守墓制に関する新知見
- むすびに

はじめに

史料が不足する韓国古代史の研究者に新史料の出現は、干天の慈雨よりも喜ばしいしらせである。史料不足という渇きを解消してくれるのみならず、研究の新たな突破口も開いてくれるからである。筆者も今年の一月十六日の朝に中国国家文物局の「中国文物信息网」のサイトで「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題下の<集安高句麗碑>発見の情報に接した後¹、しばらくの間、興奮を抑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特にこの記事には解像度は低いが拓本写真まで載せられていて、碑石の真偽についてもある程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碑石の発見情報が伝わって以後、韓国古代史学会を中心として碑石を体系的に研究するための様々な努力が行われた。一月二十九日に初めて検討会議を開催して以後、判読会(3.9、6.1)と国際学術会議(4.13)を続々と開き、現地も二回訪問した(2.22-26、5.16-19)。これを通じて諸般の情報と資料を入手し、多くの研究者の意見を収斂することができた²。去る六月末に刊行された『韓国古代史研究』70集(集安高句麗碑特輯号)は、このような研究成果を集大成したものである。

本発表文は、上記のような韓国古代史学会による調査と研究に基づいて作成したものである。ただし、碑石を二回実見したが近距離で綿密に調査することはできてはいない。また、報告書と中国学者の論著から15種の拓本写真を確保したが、元拓本を実見し得なかった点に根本的な限界を抱えている³。

1. <集安高句麗碑>の調査と研究現況

<集安高句麗碑>は、2012年7月29日に集安市麻線郷麻線村〔5組〕の村民である馬紹彬が発見した。発見地点は、集安市街地から西南に3.5km離れている麻線河の右岸河灘であり、麻線河の旧橋から南に約83m、新橋から北に約110m離れた川の河川敷で西には河川敷より約2.7m高い沖積大地が広がっている。東南の456mに千秋塚、西南の1,149mに西大墓が位置する。

馬紹彬の申告を受けた集安市文物局は、8月14日に「研究領導小組」を組織し156字の判読文（10. 6）、碑文の模写図（10. 7）、報告書の草案（10. 9）などを作成する形で1次調査を進行した。11月5 - 6日に專家委員会を開催して調査内容を検証し、広開土王代前後の高句麗碑であることを追認した。そして、專家論證会の検討内容を反映して碑文の模写図を再作成し（11. 7 - 8）、報告書の最終原稿を作成した（11. 2）。約3ヶ月に亘る碑文調査と検証作業に一段落がついたのである。

碑石は、麻線郷現地の紅星採石場で採取した花崗岩を整えて作られている。扁平な長方形で上が少し狭くて下が少し広い。碑首は圭形であり、底部両方の角は丸っぽくて、中間に碑台に碑石を建てるための枘〔榫頭〕がある。右上端の角が少し破損されている。碑石は、残高173cm、幅60.6-66.5cm、厚さ12.5-21cmであり、下段の枘は高さ15-19.5cm、幅42cm、厚さ21cmであり、重さは464.5kgである。

碑石は、正面と背面に碑文を刻んだ2面碑だ。正面下半部の碑文は、比較的摩滅が少なく、河川側に倒れていた上半部は、多く摩滅している。碑文は隸書体で陰刻されており、10行でⅠ - Ⅸ行は行当り22字、Ⅹ行は20字で全て218字である。破損した右上端の10余字は欠落している。裏面は甚だしく摩滅され中部に僅か一行のみが残っており、判読しがたい状態である。上の方に露出されたことによる自然的な摩滅か、それとも人為的な毀損かについては検討する必要がある⁴。

碑文の内容を初めて公開した<中国文物報>（2013. 1. 4.）には、正面の140字の判読文が載せられていた（<表1>）。碑文を4段落に分けて、<広開土王陵碑>（以下「陵碑」と略す）と比較すると、広開土王が先王の陵墓に建立した守墓碑の一つとして理解できる。報告書である《集安高句麗碑》は、今年4月初（刊期は2013年1月）に刊行されたが、156字の判読案を提示した（<表1>）。その上で、広開土王が歴代先王のために建立した守墓碑の一つとして故国壤王（=千秋塚）のために建立した碑石として考えている。また、建立時期と関連して論難になっているⅦ行の10-11字は「戊子」と推定している。

<表1> <中国文物報>及び《集安高句麗碑》（報告書）の判読文

	1	5	10	15	20
Ⅰ	□□□□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邹牟王之創基也			
Ⅱ	□□□□	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Ⅲ	□□□□□□	烟戸以此河流四時祭祀然而□脩長烟			
Ⅳ	□□□□	烟戸□□□□富足□轉賣□□守墓者以銘			
Ⅴ	□□□□□□□□	置□太王□□□□王神□□輿东西			
Ⅵ	□□□□□□□□	追述先聖功勳彌高悠烈繼古人之慷慨			
Ⅶ	□□□□□□□□	自戊□定律教□發令其脩復各於			
Ⅷ	□□□□□□□□	立碑銘其烟戸頭廿人名以示後世自今以後			
Ⅸ	□□□□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轉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Ⅹ	□□□□	賣如有違令者後世□嗣□□看其碑文与其罪过			

（下線のない字は、<中国文物報> 2013. 1. 4 に提示された140字の判読文
下線を引いた字は、報告書156字の判読文で追加されたもの、太い文字は
修正字）

中国学者たちの論稿も続々と発表されている。碑石調査を主導した耿鉄華教授は、報告書と最も類似した立場を表明している⁵。判読案も報告書の判読文に基づいて8字を推読し、14字を追加判読して178字の判読案を提示した。ただし、Ⅴ行の「國岡上太王」を広開土王に比定し、Ⅶ行の10-11字を「戊申」に判読するなど、一部の見解を異にする部分もある。

碑石に対する考古調査を総轄した孫仁杰研究員は、報告書と相当に異なる見解を発表した⁶。彼は、韓国古代史学会の学術会議で166字の判読案を提示した後、最終的に188字の判読案を提示した。特に、Ⅶ行4-8字を「丁卯歲刊石」に判読し、建立時期を長寿王15年（427年）と見なし、Ⅴ行の「國岡上太王」やⅥ行の「先聖」を広開土王に比定し、碑石の性格も律令碑として理解した。

このような孫仁杰の見解は、張福有研究員の見解と多くの部分で重なる⁷。張福有もⅦ行の4-8字を「丁卯歲刊石」に判読し、長寿王15年に建立されたと想定した。そして長寿王が平壤遷都以前に建立した定律碑と考えている。特に、最初は190字の判読案を提案したが、Ⅵ行の1-3字に「廿家」という2字のみ刻字したとして217字に想定し、碑文全体の推読、判読を行った。

專家論証会に参加した林滙、徐建新、魏存成教授らも論稿を発表した。林滙教授は、正面の文字数を211字に想定した後、172字の判読案を提示した。碑石の性格を守墓碑として規定した後、Ⅶ行の4-8字を「癸卯歲刊石」に判読し、広開土王13年（403年）に建立したと見た。Ⅴ行の「國岡上太王」を故国原王に比定した後、Ⅶ行の10-11字も「戊申」に判読し、故国原王18年（348年）のものと見ている⁸。

徐建新研究員は、160字の判読案を提示した後、Ⅴ行の「國岡上太王」を広開土王の諡號と見なし、412-427年に建立したと見た。Ⅶ行の10-11字は、「戊申」と見なし、守墓に関する律法が広開土王18年（408年）に制定されたと見なし、碑石の性格は「告誡碑」であるとの理解を示した⁹。魏存成教授は、独自の判読案は提示せず、様々な判読案の中でいずれのものが最も妥当なのかを検討した。碑石の性格に対しては、長寿王が平壤遷都以前に始祖鄒牟王の祭祀と関連して建立した石碑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た¹⁰。

以上のように、碑石の建立時期に対する中国学界の見解は、広開土王代説と長寿王代説に分かれる。碑石の性格に対しても守墓碑説、律令碑説、告誡碑説などが提起され、おおよそ広開土王代の論者は守墓碑、長寿王代の論者は律令碑（定律碑）か告誡碑と見なししている。このような見解の差は、韓国学界でも見られ、碑石の建立時期と関連して広開土王代説¹¹と長寿王代説¹²が大別され、性格についても守墓碑説¹³と律令碑説[教令碑,¹⁴ 文告碑¹⁵]、守墓制の宣布碑説¹⁶などが提示された。

2. <集安高句麗碑>の判読文と段落構成

1) <集安高句麗碑>の碑文判読案

碑文研究では、何よりも正確な判読文を用意するのが重要である。そこで先に報告書の判読文と様々な拓本写真を総合して碑文の判読案を提案しようとする¹⁷。<表2>は、報告書の156字の判読文に基づいて様々な判読案を総合したものである。報告書の判読文について様々な異見が提起されているが、Ⅱ行の11-14字の「祐護蔽蔭」、Ⅲ-18字の「而」、Ⅶ-13字の「律」、Ⅸ-11字の「轉」、Ⅹ-8字の「世」などは報告書の判読案が最も妥当だと考えられる。ただし、幾つの文字は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

まず、Ⅲ-10字（此：報告書の判読案、以下同一）は、現在では判読しがたい。Ⅲ-20字（脩）は、<表3>から見るように「悠」の隸書か楷書にもっと近い。Ⅳ-12字（足）は、Ⅸ-15の「足」と字形が異なり、「買」の「𠂔」に該当する字画が読み取れるので「買」である可能性が高い。Ⅳ-12字を「買」と判読すれば、Ⅳ-12字は「買」に照応する「當」である可能性が高い。Ⅴ-8字（𠂔）は、「岡」の隸書に当たる。

V-20字（興）は、上端の点は、傷跡として確認され「興」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興」の隸書体の中には、「同」字画の上端に「ノ」を付加した事例が多数確認される（＜表3＞）。

VI-15字（悠）は、下段が「𠂔」に近く、上端の「イ」へんにつくりの間に「悠」の縦線の字画を見つげがたいため、「然」字に修正して判読する。VII-18字（其）は、他の「其」字と字形が異なり、IX-9字と似ているため「更」字に修正して判読する。VIII-15字（以）は、碑文内の他の「以」字と字形が明確に異なる。中央に縦線があってその左右に「^」字画が確認され、「垂」の隸書体と似ている（＜表3＞）。更に「垂示」という表現が夙に広く使われていた。それでVIII-15字は、「垂」に修正して判読する。

IX-8字（自）は、他の「自」字と字形が異なり、IX-22の「買」字と似ている。実際、IX-8字の上端には「買」字の「𠂔」の字画が確認される。X-3字（有）は、上端に「若」字の「𠂔」、下段には「口」の字画を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X-3字を「若」に修正して判読すれば、X-2字を「如」に判読するには難しい。于拓Bから「口」の輪郭線及びその内部の「大」字画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でX-2字は、「因」に修正して判読する。

以上、報告書の判読文156字の中でIII-10字は難読字、III-20字は「悠」、IV行11-12字は「當買」、V-8字は「岡」、V-20字は「興」、VI-15字は「然」、VII-18字は「更」、VIII-15字は「垂」、IX-8字は「買」、X行2-3字は「因若」など12字を修正して判読した。次に未判読字の中で追加で判読する余地のある文字について調べてみよう。

まず、孫仁杰はIII行5-6字を「各家」に判読したが、III-5字は「各」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ただ、III-6字は真ん中に「日」の字画が見え、その下と上にも字画の痕跡がある。III行7-8字に「烟戸」という表現が続くことを顧慮すれば「家」よりは「墓」である可能性がもっと高い。また、III-19字は孫仁杰の見解のように「世」字である可能性が一番高い。IV-2字は、江拓2号で「守」字の字画が読み取れる。IV行8-10字は、「劣甚衰」の隸書か初期楷書体に近い。IV-16字は、「數」字の初期楷書体である可能性が高い。

V-6字は、「王」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が、横画が切れる現象も発見されるので、最終判断は留保する。V-7字は、碑石観察を通じて「國」字の輪郭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V-9字は「上」字、V-13字は「平」字の字画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V-15字は、「太」、「元」などの見解が提示されたが、「太」の「丶」字画は傷跡として見られる。上端の横画はI-12「元」字と似ていて、下段右の横画は「乚」の模様である。V-15字は、「元」字と「太」字の可能性が両方含まれているので、最終判断は留保する。

＜表2＞＜集安高句麗碑＞判読案の総合¹⁸

X	IX	VIII	VII	VI	V	IV	III	II	I	
賣	守	[先abg]	(丁c)	(廟d) (南e)	□	[戸]	□	[日bc] [天bg]	□	1
如 (其d) (向g)	墓	[王abg]	□	□	□	(守c) (亦g)	□	[月bc] [帝g]	□	2
有 (若c#)	之	[墓abg]	□	□	□	□	□	[之bcg]	□	3
違	民	[上abg]	(好d) (丁ag) (癸h)	□ (巡*)	□	□	□	子	□	4
令	不	立	(太d) (卯a*)	(世c) (故*)	□	烟	(各a#) (宏e)	河	世	5

者	得	碑	(聖 d) (太 e) (歳 a*)	(室 d) (國 a#)	(唯 b*) (王 d) (主 e)	戸	(家 a#) (墓 c) (定 d)	伯	必	6
後	擅	銘	(王 cd) (刊 a*)	追	(國 ab #)	[羸 c] (爲 g)	烟	之	授	7
世 (立 e) (王 e)	自 (買 cgi)	其	(日 cd) (因 e) (石 a#)	述	罍 (岡 c)	(劣 c) (規 a) (禁 g)	戸	孫	天	8
(繼 abg)	更	烟	自	先	(上 ab gi)	(甚 c) (禁 a) (舊 g)	以	神	道	9
嗣	相	戸	戊	聖	太	(衰 c) (有 a) (民 g)	此 (安 d, ◎f)	靈	自	10
[之 agi] [井 b] [守 d]	轉 (擅 egi)	頭	(子 ac) (午 d) (申 b#)	功	王	富 (當 c) (露 e)	河	祐 (祚 e) (於 e)	承	11
(者 ag) (罰 b) (墓 d)	賣	廿	定	勳	(號 ag) (國 bd)	足 (買 c) (衰 e) (庶 g)	流	護 (甄 e)	元	12
看	雖	人	律 (神 e)	彌	(平 ag) (乎 h)	(者 a) (家 d) (擅 g)	四	蔽 (假 agi) (微, 蔑 e)	王	13
其	富	名	教	高	(安 ag)	轉	時	蔭 (熊 e)	始	14
碑	足	以 (垂 c) (銘 e) (宣 g)	(言 ag) (遣 b) (内 ci)	悠 (炁*)	(太 a*) (元 ce)	賣	祭	開	祖	15
文	之	示	發	烈	王	(轉 a) (韓 bg) (數 d)	祀	國	鄒	16
与	者	後	令	繼	神	(買 a) (穢 bg) (衆 d)	然	辟	牟	17
其	亦	世	其 (更 c) (並 g)	古	(武 a*) (c) (亡 e)	守	而 (萬 a*)	土	王	18
罪	不	自	脩	人	(乘 acg) (求, 喪 e) (h)	墓	(世 a#) (其, 與 e)	繼	之	19
过	得	今	復	之	興 (興 e) (與 i)	者	脩 (悠 a#)	胤	創	20
	其	以	各	慷	東	以	長	相	基	21

V-20字が「興」字であれば、19字は「求」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が、下の字画が明確でないため判断を留保する。V-18字は「亡」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VI-1字は全体的に「廟」に近いが、「朝」字画は不分である。むしろ下段の中央部分は「南」字字画にもっと近いため、最終判断は留保する。VI-6字は、尹龍九博士の見解通り「室」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VI-5字は、周拓Aや江拓2号で「世」字に見られ、

碑石の観察を通じて「世」の「廿」字画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Ⅵ行5-6を「世室」に判読する。

中国学者たちは、Ⅶ行4-5字を「丁卯」か「癸卯」に判読した後、碑石の建立年代として把握している。とはいえ、Ⅶ-4字は右に偏っているが、「好」字であることがほぼ明確である。その次の文字は「太」、7-8字は「王曰」に判読される。「王」字の下段右側の字画は欠落している。また、「曰」字は少し眺めしており、上端の左が少し開かれているが、これと似ている「曰」の隸書体から多数確認される。Ⅶ行4-8字は「好太□王曰」に判読される。

むしろ、Ⅶ行の中心軸線に沿って上があれば、第1字の地点で干支の一部である「丁」字が読み取れる。ただし、2-3字の字画が不分明で干支全体は判読しがたい¹⁹。干支の一部であるⅦ-11字も「子」、「午」、「申」など様々な見解が提起されたが、中間の横画がⅡ-4の「子」のように横に長く、下段の縦線は傷跡に近い点で「子」字に判読する。そして、Ⅶ-15字は拓本で見える通りに「内」、X-9字は「継」字に判読される。

以上を通じて、Ⅲ行5-6字は「各墓」、Ⅲ-19字は「世」、Ⅳ-2字は「守」、Ⅳ行8-10字は「劣甚衰」、Ⅳ-16字は「數」、Ⅴ-7字は「國」、Ⅴ-8字は「上」、Ⅴ-13字は「平」、Ⅴ-18字は「亡」、Ⅵ行5-6字は「世室」、Ⅶ-1字は「丁」、Ⅶ行4-5字は「好太」、Ⅶ行7-8字は「王曰」、Ⅶ-11字は「子」、Ⅶ-15字は「内」、X-9字は「継」など全て22字を追加で判読した。その上で、Ⅴ行の6・15・19字、Ⅵ-1字などの4字は最終判断を留保する。

一方、碑文の他の句節や陵碑、＜牟頭婁墓誌＞などとの比較で推読できる文字もある。例え、碑文の中で「烟戸」は一つの単語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限り、「烟」字の次のⅣ-1字も「戸」に推読できる。Ⅱ行1-8字の「□□□子、河伯之孫」は、鄒牟王の出自を表現する部分であるが、陵碑には「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牟頭婁墓誌＞には「河伯之孫、日月之子、鄒牟聖王」などで現れる。「河伯之孫」という表現を顧慮すれば、Ⅱ行1-3字は＜牟頭婁墓誌＞のように「[日月之]」字に推読できる。

Ⅶ-Ⅷ行の「各於」□□□□立碑、銘其烟戸頭廿人名、以示後世」は、陵碑末尾の「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戸、不令差錯」に相応じる表現である。両者を対比すれば、Ⅷ行1-4字は碑石の建立場所として陵碑の「祖先王墓」に対応される。孫仁杰、耿鉄華は、Ⅷ-4字に「上」字の一部字画が残っていると見て、「先王墓上」に推読したが、妥当な見解だと考える。以上で、Ⅱ行1-3字の「[日月之]」、Ⅳ行1字の「[戸]」、Ⅷ行1-4字の「[先王墓上]」などの8字を推読できた²⁰。

以上の検討から、報告書の判読文156字の中で12字を修正し（1字は難読字として処理）、22字を追加で判読し、8字を推読した。また、推読字の2字を含む6字は、最終判断を留保し、2字は難読字に処理した。177字を判読して8字を推読した185字の判読案を＜表4＞のように提案する。

＜表4＞＜集安高句麗碑＞の判読文試案

X	IX	Ⅷ	Ⅶ	Ⅵ	V	Ⅳ	Ⅲ	Ⅱ	I	
賣	守	[先ab]	(丁c)	(△)	□	[戸]	□	[日]	□	1
(因c)	墓	[王ab]	□	□	□	(守c)	□	[月]	□	2
(若e)	之	[墓ab]	□	□	□	□	□	[之]	□	3
違	民	[上ab]	(好d)	□	□	□	□	子	□	4
令	不	立	(太d)	(世c)	□	烟	(各a)	河	世	5
者	得	碑	[△]	(室d)	(△)	戸	(墓c)	伯	必	6

後	擅	銘	(王cd)	追	(國ab)	[△]	烟	之	授	7
世	(買c)	其	(曰cd)	述	(岡c)	(劣c)	户	孫	天	8
(繼ab)	更	烟	自	先	(上ab)	(甚c)	以	神	道	9
嗣	相	户	戊	聖	太	(衰c)	(◎f)	靈	自	10
◎	轉	頭	(子ac)	功	王	(當c)	河	祐	承	11
◎	賣	廿	定	勳	□	(買c)	流	護	元	12
看	雖	人	律	彌	(平a)	□	四	蔽	王	13
其	富	名	教	高	□	轉	時	蔭	始	14
碑	足	(垂c)	(内c)	(休*)	(△)	賣	祭	開	祖	15
文	之	示	發	烈	王	(數d)	祀	國	鄒	16
与	者	後	令	繼	神	□	然	辟	牟	17
其	亦	世	(更c)	古	(亡e)	守	而	土	王	18
罪	不	自	脩	人	(△)	墓	(世a)	繼	之	19
过	得	今	復	之	(興e)	者	(悠a)	胤	創	20
	其	以	各	懷	东	以	長	相	基	21
	買	後	於	慨	西	銘	烟	承	也	22

(): 修正字、(): 追加判読字、[]: 推読字、△: 判断留保字、◎: 難読字、□: 未判読字
a 孫仁杰、b 耿鉄華、c 余昊奎、d 尹龍九、e (V-18字: 고평의、V-20字: 윤재석、X-3: 노중국·이경미)、* 張福有・林漢

判断留保字の候補案

IV-7: [羸]、V-6: 王、V-15: 元・太、V-19: 求、VI-1: 廟・南、VII-6: [聖]

2) <集安高句麗碑>の段落構成

上記の判読文を一読すると、I-II行は高句麗の開国と王位継承、III-X行は王陵の守墓関連事項などを記述したことが容易に看取できる。ところで、<広開土王陵碑>も高句麗の建国と王位継承を記述した序頭、広開土王の勳績記事、守墓人烟戸條などで構成されている。勳績記事を除けば、両者共に序頭と守墓烟戸條で構成されている。<表5>は、集安碑と陵碑の記述内容を比較したものである。

I-II行は、高句麗の開国と王位継承を叙述した序文に当たる。III-X行は、守墓烟戸と関連する部分で本文に当たり、VII-X行が「(好太)△王」の教言を記述した箇所とすれば、その前のIII-VI行は、守墓制の施行と変遷を記述した箇所である。この碑石は、大きく序文(I-II行: A)と本文(III-X行: B)に大別され、本文はまた守墓制の展開(III-VI行: B1)及び「好太△王」の教言(VII-X行: B2)などに細分される。

冒頭であるI-II行は、陵碑の冒頭の叙述順序²¹と殆ど一致し、<表5>から分かるように始祖鄒牟王の建国事実の宣言(I行: A-㉑)、始祖の出自と建国(II行 1-18字: A-㉒)、王位継承(II行 19-22字: A-㉓)などの三つの部分に分けられる。

王陵の守墓制施行と変遷を記述したB1は判読不能の字が多く、段落を細分しがたい。ただし、III行の序中盤部は、守墓制の施行とこれによる王陵祭祀の挙行などを記述した反面、IV行は守墓制の紊乱象(守墓烟戸の状態が「劣甚衰」される)とある種の対策(守墓者をどこかに刻む)を叙述したものである。それゆえ、III-IV行は逆接の接続詞であるIII行の17-18の「然而」を基準にして二つの段落に細分できる。

V行7-11字の「國(岡)上太王」は、故国原王(331-371年)に比定され、V行17-18字が「神亡」に判

読されるため、功績よりは祭祀関連事項を記述した箇所と考えられる。更に、V-20字は「興」、VI行5-6字が宗廟を意味する「世室」²²に判読されるので、V-VI行の「東西△□□□（世室）」は、新たに作興した祭祀施設であり、その次のVI行7-22字は、新たな祭祀施設に先王[先聖]の功勳を追述したものと見ることができる。V-3字からVI行の末尾までは、守墓制の乱れによる王陵祭祀施設の亡失[神亡]及び新たな祭祀施設の作興と先王の功勳を追述した部分と考えられる。

B1も守墓制の施行と王陵祭祀の挙行（Ⅲ行1-16字: B1-㊟）、守墓制の紊乱と守墓者に対する措置（Ⅲ行17字-V行2字: B1-㊠）、祭祀施設の亡失と作興（V行3字-VI行22字: B1-㊡）などの3部分に分けられる。

「(好太)△王」の教言を記述したB2は、干支の一部であるⅦ-1字（丁）から始まる。その中でⅦ行9-20字は、律の制定と令の発布を通じて守墓制を修復したことをまとめて記述した部分である。その次の部分は、歴代王陵の守墓碑建立（Ⅶ行21字-Ⅷ行18字）と守墓烟の売買禁止及び処罰規定（Ⅷ行19字-X行20字）などに分けられる。B2も律の制定と令の発布（B2-㊟）、守墓碑建立（B2-㊠）、守墓烟戸の売買禁止及び処罰規定（B2-㊡）などの3部分に分けられる。

これを通じて、〈集安高句麗碑〉は大きく高句麗建国と王位継承を記述した序文（Ⅰ-Ⅱ行: A）と守墓制を記述した本文（Ⅲ-X行: B）に大別され、本文はまた守墓制の施行や変遷を記述した段落（Ⅲ-VI行: B1）と「好太△王」の教言を記述した段落（Ⅶ-X行: B2）に区分した。これを整理したのが〈表6〉である。

〈表5〉 〈集安高句麗碑〉と〈広開土王陵碑〉の記述内容比較²³

〈集安高句麗碑〉		〈広開土王陵碑〉	備考
A	㊟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Ⅰ行1-22字）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1面）	建国源泉、建国事実の宣言
	㊠ [日月之]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Ⅱ行1-18字）	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巡幸南下、路由夫餘 奄里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爲我連葭浮龜。應聲即爲」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 而建都焉。（1面）	始祖の出自、建国過程
	㊡ 繼胤相承（Ⅲ行19-22字）	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岡、履」龍頁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遷至十七世孫（1面）	王位継承
B1	㊟ □□□□各墓烟戸、以㊠河流、四時祭祀。（Ⅲ行1-16字）	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守墓洒掃、（4面）	守墓制施行、王陵祭祀
	㊠ 然而世悠長、烟」[戸]守□□、烟戸△劣甚衰、當買□轉賣數、□守墓者以銘」□□。（Ⅲ行17字-V行2字）	吾慮舊民轉當羸劣。（中略）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戸差錯。（4面）	守墓制の紊乱、守墓者に対する措置
	㊡ □□□△、國岡上太王、□平□△王神亡、□興東西」△□□□世室、追述先聖功勳、彌高休烈、繼古人之慷慨」（V行3字-VI行22字）		祭祀施設の亡失、祭祀施設の作興

B2	㊦ 丁□□好太△王曰、自戊子定律、教内發令、更脩復。(Ⅶ行1-20字)	又制(4面)	律の制定、令の發布
	㊧ 各於「[先王墓上]」、立碑、銘其烟戸頭廿人名、垂示後世。(Ⅶ行21字-Ⅷ行18字)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戸、不令差錯」(4面)	守墓碑の建立
	㊨ 自今以後、」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轉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賣、因若違令者、後世繼嗣○○、看其碑文、与其罪過。(Ⅷ行19字-X行20字)	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4面)	守墓烟戸の売買禁止及び処罰規定

＜表6＞＜集安高句麗碑＞の段落構成と翻訳文試案

A (Ⅰ-Ⅱ行) ㊦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Ⅰ 1-22字) ㊧ [日月之]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Ⅱ 1-18字) ㊨ 繼胤相承。(Ⅱ 19-22字) ＜㊦□□□□世、必然的に天道を下し、自ら元王を継承し、始祖鄒牟王が国を創った。 ㊧日月之子、河伯之孫として神靈の保護と助けを受けて、国を建国し疆土を開拓した。 ㊨後嗣に続き相継承した。＞	
B 1 <Ⅲ-Ⅵ行> ㊦ □□□□(各墓)烟戸、以(◎)河流、四時祭祀。(Ⅲ 1-16字) ㊧ 然而(世)(悠)長、烟「[戸](守)□□、烟戸△(劣甚衰)、(當買)□轉賣數、□守墓者以銘」□□。(Ⅲ 17字-V 2字前後) ㊨ □□□△、(國)(岡)(上)太王、□(平)□△王神(亡)、□(興)東西」△□□□(世室)、追述先聖功勳、彌高(悠)烈、繼古人之慷慨。」(Ⅴ 3字-Ⅵ 22字) ＜㊦□□□□各墓烟戸、以◎河流、四時に祭祀を挙行した。㊧然れども歳月が久しくなり、烟戸守□□、烟戸が「△劣甚衰」され、売られてまた売られる者が多くなった。そこで守墓者を□して□□に刻んだ。㊨□□□△、國岡上太王、□平□△王神亡、「東西」△□□□世室」を作興し、「先聖の功勳がとても高くたいへん輝いて、古人の固い意志を継承した」と追述した。＞	
B 2 (Ⅶ-X行) ㊦ 丁□□(好太△王曰)、自戊(子)定律、教(内)發令、(更)脩復。(Ⅶ 1-20字) ㊧ 各於「[先王墓上]」、立碑、銘其烟戸頭廿人名、垂示後世。(Ⅶ 21字-Ⅷ 18字) ㊨ 自今以後、」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轉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賣、(因若)違令者、後世(繼)嗣○○、看其碑文、与其罪過。(Ⅷ 19字-X 20字) ＜㊦丁□□年に好太△王が言われるに、「戊子年に律を制定した以来、朝廷に教して令を發布して更に修復した。㊧各々先王の墓上に碑石を立て、烟戸頭20人の名を刻んで後世に伝える。㊨今より以後に、守墓之民は勝手に買ったりまた互いに売っ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くて、たとえ富足之者だとしても買賣できない。それゆえ、もし令を違反する者は、後世まで○○を継嗣させ、碑文を見て罪過を付与する。」＞	

3. ＜集安高句麗碑＞の建立時期と内容検討

1) ＜集安高句麗碑＞の建立時期

それでは、上記の内容に基づき碑石の建立時期から検討しよう。前述した通り碑石の建立時期について

は、広開土王代説と長寿王代説が伯仲のように対立している。

これと関連して、最も注目される部分は、B2-㉔の「各々[先王墓上]に碑石を立て、その烟戸頭20人の名を刻んで後世に伝える」という句節である。これは、陵碑の「ただ國岡上広開土境好太王だけが全ての祖先王のために墓上に碑石を立て、その烟戸を刻んで誤らせることのないようにした」という句節に相応する表現である。陵碑の「盡爲祖先王、墓上立碑」が「各於[先王墓上]、立碑」に変形されたが、両者共に歴代先王の王陵に碑石を建立した事実を含めている。これから見れば、広開土王が最初に歴代先王の王陵に守墓烟戸の名簿を刻んだ石碑を建ており、この碑石はその中の一つとして把握される。

このような点で碑石建立に関する教言を下した王名が「好太△王（Ⅶ行 4-7字）」で判読されることが注目される。周知のごとく、広開土王の王号に「好太王」が含まれており、広開土王以後に明治好王（文咨明王）、陽崗上好王（陽原王）、平崗上好王（平原王）などの「好王」も「好太王」の略語に推定される²⁴。「好太王」と呼ばれる王が多数存在した点で、Ⅶ行の「好太△王」を直ちに広開土王であると断定しがたい。

これと関連してⅤ行7-11字の「國岡上太王」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國岡上太王」は、特定の王を指称するが、Ⅶ行の「好太△王」と名称が異なるため、別の王であろう。＜牟婁婁墓誌＞にも「△岡上聖太王」という王名が現れるが、故国原王に比定される²⁵。故国原王が「國罌上王」と呼ばれる事実は、他の様々な資料でも確認されるので²⁶、Ⅴ行の「國岡上太王」は故国原王に把握される²⁷。

「國岡上太王」という王名は、故国原王陵を「國岡上」の立地条件で初めて造成したことに由来する。ところで、故国原王以後に故国壤王や広開土王も「國岡上」に王陵を造成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故国原王を「國岡上太王」で特称するのは他の王名と混同する余地がなかったからである。つまり、「國岡上」の立地条件に初めて王陵を造成した故国原王のみ「國岡上太王」で指称し、その後「國岡上」に王陵を造成した王は「國岡上」以外に治積など、別の呼称をつく王名を付与して区別したのである²⁸。

そう考えると、Ⅶ行の「好太△王」もこれまでの「太王」號に「好」字と「△[聖]」を加味した王を指称すると把握される。これと関連して現在に伝わっている史料上の「好太王」という呼称は、広開土王の王号に初めて出てくる事実を想起する必要がある。これと共に太王陵出土の青銅鈴の「辛卯年 好大王 教造鈴 九十六」という銘文も注目する必要がある²⁹。この鈴の中の好大王は、好太王と同一の表現であり、故国壤王説も提起されたが、大体広開土王に比定されている³⁰。

筆者は、従前にこの鈴の「好大王」が生号なのか諡号なのかの判断を留保したまま、故国壤王の没年であると同時に広開土王の即位年である391年[辛卯年]に作られたことに注目したのである。ところで、Ⅶ行の「好太△王」という句節を参照すれば、この鈴の「好大王」は生号であり、この場合広開土王を指すと把握される³¹。即ち、この鈴は広開土王が391年に父王の故国壤王の葬儀を行うために作ったものである。従って、碑石建立と関わる教言を下した「好太△王」は、広開土王として見てよい³²。

Ⅶ行の冒頭は、第1字が干支の一部である「丁」字であるため、その文章構成を干支（丁□□）+王名（好太□王）+曰……」で把握できる。これと類似する文章は、上記した太王陵出土の青銅鈴銘文や瑞鳳冢出土の銀盒杆銘文にも³³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点から当時高句麗に、中国王朝の策書書式と似た「干支（年度）+王名+曰[教]……」という文章形式³⁴が存在したことが推定できる。Ⅶ行の先頭の「丁□」は、広開土王が教言を下した年度、即ちこの碑石の建立時点なのである³⁵。よって、この碑石は広開土王の在位期の丁酉年（397年）や丁未年（407年）に建立したと推定される³⁶。

これと関連して、Ⅶ行9-20字の「自戊□定律、教内發令、更脩復。」という句節も注目される。ここの「自」は、特定時点ではなく起点を表すため³⁷、「戊□」を必ず碑石が建立された広開土王代の干支として把握する必要はない。更に「戊」字が入っている広開土王代の干支は、「戊戌（398年）」と「戊申（408年）」

があるが、拓本の字画上両方共に成立しがたい。また、「戊午」に読めば、358年（故国原王 28）か418年（長寿王 6）として読み取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418年は碑石の建立以後であるため成立されない。358年も高句麗が律令を頒布した373年（小獸林王 3年）より前である点で成立しがたい。

従って、Ⅶ行10-11字は「戊子」で故国壤王 5年（388年）に当たると考えられる。Ⅶ行 9 -20字は、「388年（戊子年）に故国壤王が制定した律に基づいて、広開土王が朝廷³⁸に教を下し令を發布して守墓制を再び修復した事実」を記述したのである。それから、守墓制修復のための措置の中で広開土王が施行したものもあるが、故国壤王代の措置も含まれているはずであろう。実際、故国壤王の末年には国社を建立し宗廟を修建した³⁹。故国壤王代に守墓制など国家祭祀体系を大々的に改編したもので、これは388年に制定した律と密接に関連していただろう。

結局 <集安高句麗碑>は、広開土王が丁□年（397年または407年）に戊子年（388年）の律に基づいて歴代先王の王陵に建立した守墓碑の一つとして把握される。

2) 高句麗建国説話に関する新知見

この碑石には、高句麗の建国説話や守墓制に関する新たな事実が多く出てくる。

まず、序文の中で始祖鄒牟王の出自を叙述したA-㉔の「[日月之]子、河伯之孫」は、陵碑や<牟頭婁墓誌>に類似な表現が出てくる。その次の「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は、鄒牟王の開国過程を圧縮して記述したが、陵碑や他の史料で関連内容が確認される。A-㉔の「繼胤相承。」は、鄒牟王以来に王位が面々に続いていることを表した部分であり、陵碑で詳細に記述されている。一方、A-㉓の場合、「始祖鄒牟王之創基也。」は、陵碑に同様な句節が出てくるが、その前の「□□□□世、必授天道、自承元王、」は、従前には見られなかった表現である。

- ①乃告於衆曰 我方承景命、欲啓元基、而適遇此三賢、豈非天賜乎?（《三国史記》高句麗本紀 1 東明聖王即位年條）
- ②對曰 此天之與物、何爲不取乎。夫大王困於扶余、誰謂大王能至於此。今大王奮身於萬死之危、揚名於遼左、此天帝命而爲之、何事不成。（《東国李相国集》<東明王篇>）
- ③夫百濟太祖都慕大王者、日神降靈、奄扶餘而開國、天帝授籙、摠諸韓而稱王。（<続日本記> 卷40、桓武天皇、延暦九年秋七月）

上記の史料は、高句麗建国説話の一部であり、①は「我[朱蒙]が天命を継承して国の基を築こうとする」と解釈される。②は、「これは天帝が命じて為すものなので、何の事が成ら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意味である。③は、「天帝が符命之書を授け、諸韓を総轄して王を称することになった。」と解釈される。上記の史料は、鄒牟王が天命[景命]を継承したり天帝の符命之書を授かったりして高句麗を開国したと述べている。それでA-㉓の中の「必授天道」は、③の「天帝授籙」、そして「自承元王」は①の「方承景命」と似ている表現で高句麗建国の源泉を記述した部分として理解される。

「籙」や「景命」などで表現される受命之符論を体系化したのは、前漢の董仲舒であり、皇帝権の神聖性と正当性を論証した一種の王権神授説である⁴⁰。董仲舒は、従来の天道論を陰陽五行説と結合させて「元氣」という概念を設定した。彼は「元」を「万物の本源」とであると同時に人の根本である「根源的存在」として把握した⁴¹。また「天」は万物の祖といい⁴²、「元」と同一視している。天と元を万物の本源でありながら、祖としての神秘的な造物主の役割を兼ね、万物とその発展規則を掌る存在として設定したのであ

る⁴³。

これから見れば、A-㉠の「天道」と「元王」は、董仲舒の天道論と元氣論に由来した可能性が高い。董仲舒において、天道とは人間世界の運営原理である人道の根拠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⁴⁴。従って「必授天道」は、万物の造物主である元=天が人間世界を運営する根拠である「天道」を授与した意味で、「天帝授籙（③）」と同一な意味として理解される。また、「元王」は万物の本源を意味する「元」から由来する単語で「天帝」に相応じる表現であり、高句麗建国源泉の深源性を現すための造語として考えられる⁴⁵。

A-㉠は、漢代の儒学思想を借りて高句麗建国の源泉と正当性を記述した部分なのである。これと関連して、陵碑の「聖」という表現を「儒教的王道政治」⁴⁶や「聖人のような統治能力」⁴⁷を意味すると見た見解が注目される。これによれば、陵碑冒頭の「生而有聖」の「聖」は、「儒教的聖徳」を意味し、A-㉠の「天道」に相応じる表現と見られる。従って、陵碑の選者がA-㉠の中で「惟始祖鄒牟王之創基也」のみを採択して、一番冒頭に建国事実の宣言を記述し、「□□□□世、必授天道、自承元王」は鄒牟王の誕生過程と合わせて「剖卵降世、生而有聖、□□□□」と叙述した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集安高句麗碑〉の選者は漢代の儒学思想を借りて高句麗の建国源泉を記述した。ここに従来、高句麗建国説話で見えなかった新たな様相を確認できるのである。

3) 高句麗王陵の守墓制に関する新発見

集安碑は、王陵守墓制に関しても新たな情報を多く提供する。

まず、Ⅲ行1-16字の「□□□□（各墓）烟戸、以◎河流、四時祭祀」という句節は、高句麗でも守墓制の施行と共に王陵祭祀を挙行了たことを明示している⁴⁸。その中で四時祭祀という句節は、漢代の陵墓祭祀と比較すると⁴⁹、毎年4回挙行了た便殿祭祀に相応する。勿論、これは高句麗が陵墓祭祀を挙行了たという慣用的な表現であり、実際には漢代の陵園のように毎日4回行われる寢殿の上食、毎年25回行われる廟祭などの様々な祭祀を挙行していただろう。

このような点で、Ⅲ行の「以◎河流」を四時祭祀の挙行場所と見ることは⁵⁰は難しい。文章の構造上「以◎河流」は、すぐ後の「四時祭祀」と並列的な表現である場合とこれを修飾する場合に分けられる。並列的な表現の場合には、「◎」に河流の氾濫防止など陵墓の管理と関わる表現がくる可能性が高い。反面、これを修飾する場合には祭祀挙行と関わる行為を表すが、高句麗人らが「谷の水[澗水]」を飲用したことを顧慮すれば、祭需用水や上食鹽水などを河川水[河流]で当てたことを意味する可能性が高い⁵¹。

Ⅲ-17字からⅤ-2字までは、(B1-㉠) 守墓制の乱れとそれに関する対策を記述した部分である。その中でⅣ行11-12字を「當買」に修正して判読したが、守墓制の乱れによる守墓烟戸の売買が初期から買収や転売を繰り返す様相を帯びていたことを見せてくれる。このような売買現象を防止するために、守墓者をどこかに刻んだとしたが、「銘」の次の文字が判読できないため、刻んだ場所（物件）は分からない。

一方、Ⅴ行には王という文字がしばしば登場する。その中で「國岡上太王」は、故国原王に比定されるが、他の「王」字は不分明な点が多いため、尤も綿密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ただ、Ⅵ行5-6字の「世室」が「宗廟」を意味するため、Ⅴ行下段からⅥ-6字部分までは、王の功勳よりは王陵祭祀施設の亡失[神亡]と新たな祭祀施設の作興[△興]を記述したものと思われる。そして、Ⅵ行7-22字は新たな祭祀施設に先王[先聖]の功勳を追述した部分である。また、故国壤王が守墓律を制定し国社・宗廟を修建したことを顧慮すれば、「世室[宗廟]」などの作興も故国壤王代に行われ、その時点から王室祖先祭祀の中心が陵墓から宗廟に変化したと推定される⁵²。

B2の段落は、守墓制を修復するために広開土王が取った措置を記述した部分である。この部分につい

ては、陵碑と同一或は類似な表現が多く、新たな表現も多数存在するので既存の研究成果⁵³と対照して、多角度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具体的な検討は後日を期し、本発表では新たに認知した事実のみをいくつか指摘する。

まず、Ⅶ-1字の「丁□」は守墓制修復をまとめた広開土王の教言が397年（丁酉）や407年（丁未）に下された可能性を示唆する。そして、「自戊子定律、教内發令、更脩復」という句節は、373年律令頒布時には守墓制に関する律令を整えていなかったが、388年（戊子年、故国壤王5）に守墓制に関する律を制定して以来、数回にわたり教令を發布して守墓制を修復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守墓に関する律と令は区別されており、律が一定の時点で制定された反面、令は教の形で随時發布されたのである。

これと関連して、陵碑には律に関する内容が出てこない反面、守墓烟戸の売買禁止と関連する措置を「又制」として記述したことが注目される。「制」は、「制書」の略字で皇命の形式の中の一つであるため、陵碑の「又制」とⅦ行の「教内發令」は相応じる表現として考えられる。よって、陵碑では守墓烟戸の売買禁止の条項のみ制[教・令]の形で施行したと記述したが、守墓碑建立も教・令[制]による措置であることが分かる。

守墓烟戸制と関わって最も注目される句節は、Ⅶ-Ⅷ行の「各於[先王墓]上、立碑、銘其烟戸頭廿人名、垂示後世」という句節である。碑石の背面に字画の痕跡があったとしたので、烟戸の名簿は裏面に刻んだものと推定される。また、この句節の「各」は陵碑の「盡」に当たるが、全ての先王の王陵に碑石を建立したことを強調した表現である。この句節の「烟戸頭」は各烟戸の戸主、または守墓人管理者を指す両方の可能性がある。ただ、後代の資料ではあるが「戸頭」が「戸主」を意味する用例が多数確認され⁵⁴、20家を単位に守墓制を施行していた事実も確認される⁵⁵。よって、「烟戸頭」を各守墓烟戸の戸主として把握し、各王陵には守墓烟戸20家を配置したと理解した。

X行の売買禁止を違反する時の処罰規定の中で「後世（継）嗣○○」が陵碑の買人に対する措置[「買人制令守墓之」]に当たるとすれば、「看其碑文、与其罪过」は売者に対する刑罰[「賣者刑之」]に当たる。このような点から「其碑文」は、この碑石を含む各王陵の守墓碑の背面を指すと把握される。当時、守墓烟事の売買は買収と転売が繰り返される形で進まれた。従って、売買事実を摘発しても売者[守墓烟戸]が本来どの王陵の所属なのかは判別し難かっただろう。そこで各王陵の守墓碑背面の名簿と対照して売者[守墓烟戸]の所属を明らかにした後、罪過を付与したと把握される。

最後に、碑石の元の位置と陵域を検討する。碑石の元の位置は、発見地点より上の沖積大地の一帯に推定される⁵⁶。この場合、この碑石がどの王陵の守墓碑であるかが問題となる。最も近い王陵級の古墳である千秋塚との距離も456mになるためである。従前では、陵墓から40-100m離れている陵域までを陵域と考えられてきたが、このような理解方式では、この碑石がどの王陵に建立された守墓碑なのか把握しがたい。このような点から、最近碑石の西の建疆村で発見された敷地が注目される。この敷地は、北に約700-800mの距離の麻線溝626号墳と関連する施設と見られ⁵⁷、これは当時陵域の範囲が相当広がった可能性を示唆する。ただ、現在まで確保された資料だけでは、この碑石がどの王陵の守墓碑なのかは断定しがたく、周辺地域に対する考古調査と共に、また他の王陵守墓碑の発見を待つ必要がある。

むすびに

以上を通じて、報告書の156字の判読文の中で、12字を修正し、22字を追加で判読し、8字を推読して185字の判読案を提案した。そして、陵碑と比べて碑文構成を高句麗建国と王位継承を記述した序文（Ⅰ-Ⅱ行）

と守墓制を記述した本文（Ⅲ-X行）に大別し、本文はまた守墓制の施行と変遷を記述した部分（Ⅲ-VI行）と「好太△王」の教言を記述した部分（Ⅶ-X行）に細分した。

この碑石は、広開土王が故国壤王の戊子年（388年）の律に立脚して、歴代先王の王陵に建立した守墓碑の一つとして丁□年（397年あるいは407年）に建立したものである。碑文から漢代の儒学思想を借りて建国説話を粉飾した事実、守墓制施行と共に四時祭祀を挙行した事実、守墓制の乱れで夙に守墓烟戸が売買され王陵祭祀施設に問題が生じると世室[宗廟]のような新たな祭祀施設を作興した事実などが明らかとなった。また、広開土王が父王の律に立脚して教・令を發布し守墓碑を建立し守墓烟戸売買を禁止するなど守墓制を修復したことも指摘した。

一方、筆者の見解通りこの碑石が広開土王代に建立されたとすれば、現存する最古の高句麗碑になる。更に、陵碑や<忠州高句麗碑>とは異なる当時中国大陆で流行した圭形碑の形をしており、純漢文に作成されている。これは、高句麗が最初は中国大陆の石碑と文字文化を原型に近く受容した後、これを高句麗の伝統と合わせて独創的な形に変容する様子を見せてくれる。このように、高句麗が中国大陆の先進文化を受容して変容する様相は、今後多角的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

ただ、本発表文は碑文と元拓本を綿密に調査していない点に根本的な限界を持っ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今後持続的に補完することを約束する。

注

- 1 集文(集安市文物局)、2013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 <中国文物報> (2013.1.4、2版)
- 2 이영호、2013 <집안 고구려비의 발견과 소개> 《韓國古代史研究》69; 여호규、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70
- 3 この発表文は、여호규、2013、前掲文を整理・補完したものである。
- 4 集安市博物館編著、2013 《集安高句麗碑》吉林大学出版社
- 5 耿鉄華、2013a <集安高句麗碑捶拓與研究>《新發見集安高句麗碑関連韓中日専門家ワークショップ資料集》東北亜歴史財団; 2013b <中国集安出土高句麗碑の真实性>《韓國古代史研究》70; 2013c <集安高句麗碑考釋>《通化師範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 2013-2; 耿鉄華・董峰、2013d <新發見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社会科学戰線》2013-5; 2013e <集安新出土高句麗碑的重要價值>《東北史地》2013-3
- 6 孫仁杰、2013a <集安高句麗碑發見調査與捶拓>《新發見集安高句麗碑関連韓中日専門家ワークショップ資料集》東北亜歴史財団; 2013b <集安高句麗碑識読與文字比較>《韓國古代史研究》70; 2013c <集安高句麗碑文識読>《東北史地》2013-3
- 7 張福有、2013a <吉林集安高句麗碑碑文補釋>《名家》2013-2; 2013b '集安麻線高句麗碑碑文補釋' <中国文物報> (2013.4.10); 2013c <集安麻線高句麗碑探綜>《社会科学戰線》2013-5; 2013d <集安麻線高句麗碑碑文補釋與識読解析>《東北史地》2013-3
- 8 林濤、2013 <集安麻線高句麗碑小識>《東北史地》2013-3、7-16頁。
- 9 徐建新、2013 <中国新出 '集安高句麗碑' 試析>《東北史地》2013-3、17-31頁。
- 10 魏存成、2013 <關於新出集安高句麗碑的幾點思考>《東北史地》2013-3、32-39頁。
- 11 이용현、2013 <신발견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비교>; 조법중、2013 <집안고구려비의 특성과 수묘제> (以上、高句麗渤海学会59次發論文集、2013.2.22) 及び금경숙、2013 <새로 발견된 '지안고구려비' 에 관한 몇 가지 고찰>《東北亜歴史問題》(2013.2.25); 공석구、2013 <고구려 수묘비의 발견과 몇 가지 해석>《高句麗渤海研究》45; 고헌의、2013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형태와 서체>《高句麗渤海研究》45; 여호규、2013 前掲文; 정호섭、2013 <集安高句麗碑의 성격과 주변의 高句麗古墳>《韓國古代史研究》70; 조우연、<집안고구려비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韓國古代史研究》70; 이성제、2013 <집안고구려비로 본 수묘제>《韓國古代史研究》70
- 12 김현숙、2013 <지안고구려비의 건립시기와 성격>《東北亜歴史問題》(2013.2.25). 一方、서영수、2013 <'지안 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高句麗渤海研究》45では広開土王代より後代に建立されたと推定している。
- 13 공석구、2013 前掲文; 조법중、2013 前掲文; 여호규、2013 前掲文
- 14 김현숙、2013 前掲文; 정호섭、2013 前掲文

- 15 조우연, 2013 前掲文
- 16 이성제, 2013 前掲文
- 17 今まで確認された碑石の正面拓本は、15種である(尹龍九,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拓本과 判讀>《韓國古代史研究》70)。本発表文の判読案は、善本である周榮順拓本A(‘周拓A’)、江化国・李光夫2号(‘江拓2号’)、于麗群拓本B(‘于拓B’)などを比較し、碑石の観察結果に基づいて作成した。背面の銘文は、判読しがたい状態で、張福有は中間で「□□國烟□守墓烟戶合廿家石工四烟戶頭六人」、左側下段で「國六人」などを判読し(張福有, 2013c 前掲文, 18-19頁)、孫仁杰が模写図を作成したところである(《東北史地》2013-3表紙の裏面)。
- 18 □: 未判読字、[]: 推読字(「烟」字の次は[戸]に推読)、◎: 難読字
(): 追加判読字、a 孫仁杰、b 耿鉄華、c 余昊奎、d 尹龍九、e 3月9日判読会、f 6月1日判読会、g 張福有、h 林湮、i 徐建新、# 張福有・林湮・徐建新、* 張福有・林湮
- 19 <表3>から分かるように周拓A、江拓2号、于拓BなどでⅦ行1-2字の間の右側に「未」字と類似な字画が確認され、Ⅶ-2字の少し下に「中」字または「年」の隸書と似ている字画が読み取れる。ただし、文字が元の位置から外れており、傷跡と字画を区別しがたいため、判読案には含ませず、拓本観察の結果のみ指摘して置く。
- 20 Ⅳ行5-10字を「烟戶□(劣甚衰)」に判読したが、陵碑の「吾慮舊民轉當羸劣」という表現と比べると、Ⅳ-7字を「羸」に推読できる。Ⅶ-5字も前後の文字が「好太□王」に読み取れるため、「聖」字である可能性が高い。ただ、2文字共に最終判断は留保する。
- 21 여호규, 2011 <‘광개토왕릉비’의 서사구조와 武勳記事의 서술체계>《広開土大王碑と拓本》(特別展「文字、その後」記念シンポジウム発表論文集、国立中央博物館)、14-17頁
- 22 《周禮》考工記 匠人:「夏后氏世室、堂脩二七、廣四脩一。」鄭玄注:「世室者、宗廟也。」
- 23 盧泰敦, 1992 <広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I)》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を参照。
- 24 임기환, 2002 <고구려 왕호의 변천과 성격>《韓國古代史研究》28、8-11頁
- 25 武田幸男, 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330-335頁
- 26 《三国史記》高句麗本紀6、故國原王即位年條; 百濟本紀2、近仇首王即位年條。
- 27 林湮, 2013、前掲文、15頁
- 28 여호규, 2010a <고구려 태왕호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歷史文化研究》35
- 2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集安高句麗王陵》文物出版社、270-272頁。
- 30 様々な見解は、여호규, 2010b <1990년대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의 출토현황과 연구동향>《韓國古代史研究》57、91-94頁を参照。
- 31 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韓國古代史研究》41、126-127頁
- 32 Ⅶ行の「好太△王」を「好太[聖]王」に推読すれば、故国壤王代に「太王」号に「好」字を最初に加味し、広開土王代に再び「聖」字を追加した可能性もある。
- 33 노태돈, 1992 <瑞鳳冢出土銀盒杆銘文>《訳註韓國古代金石文》(1)
- 34 蔡邕,《獨斷》(上)「策書」; 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韓國古代史学会133会発表会発表文)、13頁; 中村裕一, 2003《隋唐王言の研究》汲古書院、28-30頁
- 35 Ⅷ行19-22字の「自今以後」の「今」は、「好太△王」が教言を下した時点としてこの碑文に明記されていたと見るのが妥当であり、これが表記される空間はⅧ行1-3字しかない、このような点からも、Ⅷ-1字は干支の一部である「丁」字に判読できると考えられる。
- 36 Ⅶ行1-2字の間の「未」の字画を認めれば、「丁未年」即ち407年と見られる。
- 37 <広開土王陵碑>:「八年戊戌、(中略)自此以來、朝貢論事。」及び「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一方、特定の時点を表現する時は、主に「以」字を使用した(「以甲寅年 九月廿九日乙酉 就山陵。」及び「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
- 38 2013年4月13日に、韓國古代史学会の学術會議で成均館大の權仁瀚教授が「内」を朝廷と解釈したことがある。
- 39 《三国史記》高句麗本紀6、故国壤王9年3月條
- 40 劉国民, 2010 <先秦儒家思想發展的重要轉折>《齊魯學刊》2010-5、30-32頁
- 41 《春秋繁露》卷3 玉英、卷5 重政、「故元者爲萬物之本、而人之元在焉。」
- 42 《春秋繁露》卷15 順命、「天者、萬物之祖、萬物非天不生。」
- 43 宋錫同, 2008 <漢代經學走向管窺>《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3-1
方軍, 2011 <天道與元氣>《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13-1、27-29頁
- 44 劉国民, 2007 <董仲舒以陰陽之天道解釋人道>《西南民族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6

- 45 「元」が「元氣や天」を意味するため、「元王」をあえて他の言葉で表現すれば、「天王」と言える。〈東明王篇〉の天王は、「元王」に当たる表現なのである。ただ、《春秋繁露》に「天王」は「失政で天下を失った王」という意味でよく使われるが(巻4王道編及び巻5重政編など)、碑石の選者が天王という単語を避けたとも見られる。
- 46 川崎晃、2012 〈高句麗広開土王碑の基礎的考察〉《古代学論究》慶応義塾大学出版部
- 47 조우연、2010a 〈고구려 제천의례의 전개〉《高句麗渤海研究》41、63-65頁
- 48 これに関連して、高句麗の国家祭祀が陵墓祭祀から宗廟祭祀に変遷したと把握した最近の研究成果が注目される(강진원、2008 〈고구려 시조묘 제사 연구〉《韓國史論》54; 조우연、2010b 〈고구려의 왕실 조상제사〉《韓國古代史研究》60)。
- 49 楊寬、2003 《中国古代陵寢制度史研究》上海人民出版社; 郭善兵、2004 〈東漢皇帝宗廟禮制考論〉《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6-3; 김택민、2013 〈중국 고대 守陵제도와 율령〉《広開土王碑の再照明》東北亜歴史財団
- 50 耿鉄華、2013c 前掲文、3-5頁; 孫仁杰、2013c 前掲文、52頁
- 51 徐建新、2013 前掲文、27-28頁にも「河流を利用して」と解釈した。
- 52 강진원、2008 前掲文、41-42頁; 공석구、2013 前掲文、46頁
- 53 공석구、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高句麗渤海研究》39; 정호섭、2012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先史と古代》37
- 54 《隋書》卷24 食貨志:《後漢書》卷3、章帝元和2年5月條に対する唐の李賢の附注; 宋の趙昇の《朝野類要》卷3、入仕、脚色條:『天成令』第30條:王啓濤、2012 ‘戸頭’『吐魯番出土文獻詞典』、巴蜀書社、454頁。
- 55 《三国史記》高句麗本紀4、新大王15年條:新羅本紀6、文武王4年條
- 56 集安市博物館編著、2013、前掲書、8頁; 耿鉄華、2013c、前掲文、3頁
- 57 王志剛・顧聆博・張哲、2012 〈集安高句麗早期遺存研究新進展〉《東北史地》2012-4、7-10頁

＊司会：

余昊奎先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やはり、この1年余りの間、中心的にこの新発見のこの碑文の研究に携わってこられたお立場から、まずは釈読の案についてこれまでとは若干異なる、あるいは新しい文字も多く含む私案をご提示いただいて、会場ではTPTで出土文字資料の関係とか内容とかから非常に具体的に細かく案を解説していただきました。また、後半は文章の中身に深く入っていかれて、文章表現等から読み取れる高句麗の制度、あるいは祭祀、思想的な背景というようなところまでご解説をいただき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通訳をしていただいたのは橋本繁さん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それではちょうど予定の時間になっているのですが、この後はコメント、それから総合討論ということの予定になっておりますが、ここで一旦休憩を取りたいと思います。15分休憩をとりたいと思いますので、4時15分から再開という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す。

【休憩】